

경기도-카이스트, 이동형 음압병동 활용한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 공동운영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이동형 음압병동 활용해 경기도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자가치료 연계 단기진료센터) 운영

경기도가 카이스트(KAIST)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수원 경기도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에서 경기도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다.

도는 이곳을 경증환자 중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자가치료 연계 단기진료센터로 운영할 방침인데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이동형 음압병동이 투입된다. 이동형 음압병동을 활용한 자가치료 연계 단기진료센터는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른 병상 부족 해소는 물론 자가치료 확진자에게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역시스템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 방문해 운영 준비 상황과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과 배홍식 카이스트 코로나 대응 과학기술 뉴딜사업단장, 남택진 카이스트 교수 등이 함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특별생활치료센터는 과학기술과 의료 방역체계가 아주 밀접하게 최첨단으로 결합된 훌륭한 시스템인 것 같다"며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빨리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 것도 고려해 봤으면 한다. 대한민국 능력과 기술 수준, 국력을 올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같이 힘을 합쳐서 모범적인 의료 방역체계, 계속 반복적으로 오게 될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는 선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게 병원이 포화상태가 돼서 갈 곳이 없다는 것인데 이동형 병실은 그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카이스트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이동형 음압병동이 코로나 방역에 기여할 수 있어 굉장히 기쁘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는 28병상 14병실(2인1실), 1병실(X-ray실, 처치실)로 구성해 오는 13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전담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운영총괄을, 카이스트는 병동 구축과 시설 민원 대응을 맡았다. 자가치료 연계 단기진료센터로 운영되는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는

자가치료 확진자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1~3일간 단기로 입소하게 된다. 이상 징후 발생 시에는 전담(중증)병원으로 전원하고 특이사항이 없다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 자가치료를 하는 방식이다.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이동형 음압병동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기존 생활치료센터와 달리 의사 및 간호사 회전 등 대면 진료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며, 환자 건강 상태에 따라 산소치료, 엑스레이(X-ray) 및 혈액검사도 가능하다. 카이스트가 한국형 방역패키지 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연구,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동형 음압병동(Mobile Clinic Module, MCM)'은 에어테트 구조의 블록형 모듈로 고급 의료 설비를 갖춘 음압격리 시설이다. 카이스트는 작년 7월 기술개발 후 그동안 시범운영(원자력의학원, 건양대병원)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건양대병원 응급실의 경우 음압격리실로 설치해 지난 6월부터 2개월 동안 138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계속 운용 중이다.

이동형 음압병동은 의료진과 환자의 생물학적 안정성은 물론 입원 환자의 사생활 보호 기능도 뛰어나다.

또 병동에 설치된 '패스박스'를 통해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물품 전달 등이 가능해 들어갈 때마다 보호복을 입어야 하는 의료진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동형 음압병동은 신속하게 병상을 마련하고 변형하거나 개조해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무게와 부피를 70% 이상으로 줄인 상태로 군수품처럼 보관하면 된다. 모듈화한 패키지는 항공 운송도 가능해 병동 전체를 수출하거나 제3세계에 지원할 수도 있다.

이동형 음압병동을 활용한 경기도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는 한국방역시스템의 신개념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음압병상의 효율화와 최적화 모델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지난 3월 이후 누적 2,100명 이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낸 경기도의 자가치료 프로그램과 유기적으로 연계했을 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병상부족을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곳의 운영 실증 데이터 확보를 통해 향후 감염병 재난 발생시 대응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조혜영기자

[기고]우리는 비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말하기 곤란한 상황에 부딪치면 자신이 표현하려는 바를 다른 것에 빗대어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자신이 서로 전혀 다른 두 가지의 관념을 어떤 유사한 요소에 근거하여 결합하는 것이 은유적 표현이다. 예를 들어 "시간을 소중히 하라." 시간을 투자하다, 시간을 낭비하다, 시간을 아껴 쓴다. 와 같은 표현에서 시간은 돈에 비유되는 은유적 표현이다. 환유는 어떤 사물을 그 속성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름으로 대신하는 표현이다. 나에게 빵을 달라. 펜은 칼보다 강하다. 머리를 자른다. 등은 모두 환유 표현이다. 빵은 부분으로 전체(음식)를 지시하는 환유이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에서 펜은 문장의 힘을 가리키고, 칼은 무력의 힘을 가리키는 환유이다. 머리를 자른다는 것에서 머리는 머리칼을 가리키므로 전체로 일부분을 지시하는 환유적 표현이다.

우리는 시의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말했다. 특히 일체에 맞서 저항하는 뜻은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동시에 합부로 그 뜻을 알지 못하기 위해 비유법을 사용했다. 광고는 짧은 시간, 혹은 장면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해야 한다.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집약하여 말하기 위해서 은유나 환유를 사용한다. 이렇게 우리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숨은 의도를 전달한다. 퇴계 이황이 죽으면서 사랑하는 두향이가 준 매화에 환유적인 표현으로 말하는 운치를 느껴보길 바란다.

퇴계 이황(지폐 1,000원 인물)은 49세에 단양군수로 부임한다. 이때 수청을 둔 관기는 18세의 두향(杜香)이었다. 퇴계는 2년 전 둘째 부인권 씨와 사별한데 이어 아들까지 잃어서 외로움과 수심에 가득하여 있었다. 이렇게 우울할 때 절세 미모에다 시문과 분재에도 능한 두향을 본 퇴계는 첫눈에 마음에 들어 애지중지하게 되었다. 두향이기도 학문과 도덕이 높은 퇴계를 흠모하고 존중하며 가까이 모시게 됐다. 이렇게 둘은 첫눈에 서로 좋아져서 마음속으로 깊이 사랑하게 됐다.

둘 사이의 사랑을 시새어나 한 듯 두 사람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퇴계가 9개월 만에 풍기 군수로 발령받아 단양을 떠나게 됐다. 두향(杜香)은 분재(매화)를 떠나게 퇴계에게 준다. 그리고 둘은 그 후로 서로 그리움만 간직한 채,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시를 지어 소식만 전하게 된다. 퇴계는 1570년 70세 안동에서 숨을 거둔다. 숨을 거두면서도 퇴계는 아들에게 두향이 준 분재(매화)에 "물을 잘 주어야"는 환유적 표현으로 유언을 남긴다. 죽으면서도 두향을 잊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퇴계는 두향을 기숨에 안고 갔다. 이렇게 이황은 환유적 표현을 통해 매화를 두향이라고 말한 것이다.

요즘 정치인들의 막말이 너무 심하다. 국회의장에게 욕설 개XX를 뜻하는 'GSNG', 상대방 대표에게 동물 표현 등을 국민이 정치인에게 혐오를 느끼게 하는 표현 등이다. 반어적으로 떠난 이를 높여주는 김소월 '진달래꽃' 가사를 음미해보자.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이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말도 그 사람의 품격이다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 우리 정치인들이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상대방의 위상을 올려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고 싶은 것은 나만의 소망일까?

교수/김원호

민생경제 방역에 최선...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 취임

사회적기업 3000개 돌파...3년만에 1000개 증가

별도의 취임식 생략하고 방역대책본부와 현장방문으로 공식 일정 시작

일자리제공률이 66.5%...지자체 고용 6344명·평균임금 5.8% ↑



정해용 신임 경제부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취임식은 생략하고 대구시 코로나19 방역대책본부와 민생경제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경제부시장으로서의 첫발을 내딛었다.

정해용 경제부시장은 9월 8일 오전 9시 시청별관 대강당에서 임용장 수여식을 간단히 마치고 시청 본관 10

층에 마련된 대구시 코로나19 방역대책본부를 찾아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생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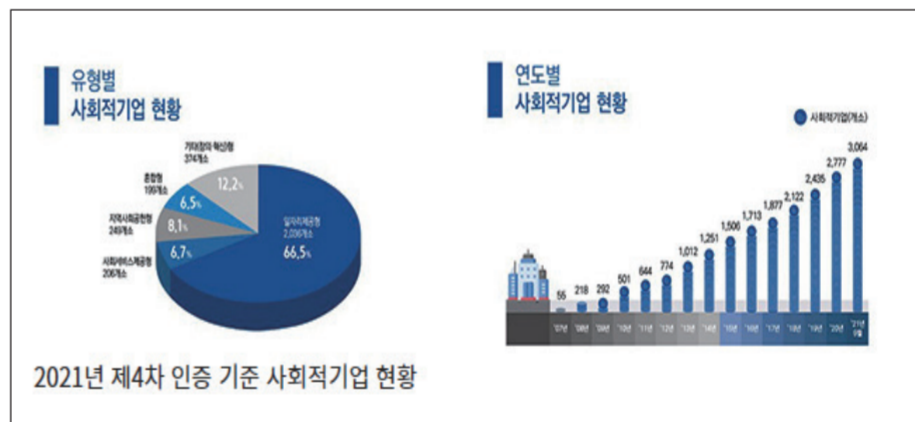
이어 정 경제부시장은 오전 12시에 대구경북상생장터를 찾아 지역 상인들과 현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대구경북 상생발전방안에 대한 해답을 모색했다. 또한

오후 2시 엑스코에서 개최된 2021년 기업애로 해결박람회에 참석하여 지역 경제인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젊은 경제수장의 모습을 보여줬다.

개막식 일정 이후 시청 별관 집무실에서 경제 관련 부서 실·국장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으며 지역 경제현안들을 꼼꼼히 챙기는 한편 코로나19 확산방지 관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임 당일 빡빡한 일정을 마무리한다.

정해용 경제부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지역 민생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하며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통합심공합건설, 추수원 다변화, 신청사 건립과 같은 굵직한 숙원사업들을 해결해줄 것"이라며 "자금이 소리지 없이 강하게 변화와 혁신으로 대구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남궁영기자



2007년 사회적기업 인증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수가 총 3064곳으로 3000개를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8일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97개 사회적기업을 새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회적기업 수는 2018년에 2000개를 달성했고 이어 3년만에 1000개가 증가했다. 기업 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률이 66.5%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지역사회공헌성이 증가하면서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복지, 도시재생, 돌봄 등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사회적기업의 역할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21년 제4차 인증 기준 사회적기업 현황 그동안 사회적기업은 활동 분야가 다변화되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촉진되면서 사회적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로 성장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연대와 협력의 가치로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며 취약계층에게 든든한 고용안정망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사회적기업의 고용은 6344명 늘었고 평균임금은 5.8% 증가했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취약계층을 전년 대비 10.4% 증가한 3만 3206명 고용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의 전체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매출액은 5조 2939억원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하면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데 기여했

도민 아이디어로 전남 밝은 미래 설계한다

전라남도는 도민과 함께 행복한 으뜸 전남을 설계할 '2021 도민 행복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탄소중립 실현,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 대안 모색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특목 뛰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아이디어 모집기간은 9일부터 10월 18일까지다.

공모 주제는 ▲탄소중립을 위한 공공 대응 방안 ▲인구·청년·일자리 정책 ▲쉽고 바른 공공언어의 사용 확산 방안 ▲메타버스(Metaverse)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등 4개 분야다.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다.

참여를 바라는 국민 참여 포털인 '국민신문고'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우편(전남도청 정책기획관실 제안담당자 앞)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참여가 이어지도록 공모전 SNS 소문내기 이벤트, 추첨을 통한 경품 증정 이벤트 등을 펼친다.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면 상장과 시상금을 지급한다. 시상 내역은 ▲금상 1명 300만 원 ▲은상 1명 200만 원 ▲동상 2명 각 100만 원 ▲장려상 3명 각 50만 원이다. 기타 입선작도 소정의 부상품을 지급한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전남도 누리집에 공개하며, 보완 등 과정을 거쳐 정책에 반영, 전남도정 혁신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김기홍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도정 혁신의 시작과 끝은 도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이라며 "이번 공모전이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이 되고, 이를 통해 전남의 밝은 미래를 설계할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 활성화 일환으로 매년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해 도정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김덕윤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코로나19 보육현장 위기극복 예산 등 추경 수정가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창순/더민주, 성남2)는 7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 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의 제3회 추경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

이 날 가결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 기준 330억 2,400만원이 증액되고, 29억 6,700만원이 감액되는 등 300억 5,700만원이 순증액되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추경

안 심사에 앞서 진행된 사전회의에서 집행부 추경예산안이 코로나 위기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등에 중점을 둔 만큼 누락된 사업은 없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에 방점을 두고 심사에 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소속 위원들은 금번 추경예산안이 국비변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조정분과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반면에, 저출산과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코로나19 보육공백 해소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비 한시 지원 예산 85억 신규 증액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이 부재하고,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 등이 누락된 점에 대하여 해당 부서를 질타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국의 추경예산안은 ▲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 청소년 등 1만 9,000명 대상 도차원의 교육재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장기연체자가 늘어남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였다.

여성가족국은 ▲ 저출산의 그늘과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휴원 등으로 교직원 고용유지 예로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한시적 운영비 지원 예산으로 85억 2,70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였고,

▲ 빠듯한 운영비에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의거 창문을 열고 에어컨 가동으로 냉방비 지출 부담까지 겹쳐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한시 지원 예산으로 2억 3,70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였다.

박창순 위원장(더민주, 성남2)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부모, 아동, 어린이집 관계자 모두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금회 신규 반영 예산안이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덜어드리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며, “예결위에서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상임위 역할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9.15, 수)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혜영기자

경남도의회, 청렴 의회 실현을 위한 캠페인 실시



경상남도의회 김하용 의장을 비롯해 경남도의원들은 8일 본회의 산회 후 본회의장에서 청렴한 경상남도의회를 만들기 위한 다짐 캠페인을 실시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반부패·청렴 실현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부패와 특권없는 청렴한 도의회 실현을 위해 도의원들과 직원들이 힘을 모아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캠페인과 더불어 의회 내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

직자로서 지켜야 할 청렴의무와 노력의지를 매주 1~2회 청내 방송과 문자알림을 하고, 다가오는 10월 전 도의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하용 의장은 “청렴은 우리 도의회가 실현해야 할 필수적인 덕목인 만큼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남도의회로 거듭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광용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전국 최다 본선 진출

전국 지방의회 본선 진출 우수사례 4건으로 전국 최다

광주광역시의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1년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4건의 우수사례가 본선에 진출하여 광주시의회 의정활동을 인정받았다.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 '91년 지방의회가 제출된 이후 현재까지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해서, 주민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우

수사례와 우수 의정활동을 선정하여 지난 30년간 지방의회의 활동성과를 널리 알리고,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의회 관계자와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향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동기부여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다.

이중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진한 4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는데, 자치

입법 분야에서는 ▲ 광주광역시 근육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등 2건이 선정되었고 의정활동 분야에서는 ▲ 달빛동맹으로 이루어 낸 달빛내륙철도사업 국가계획 반영, ▲ 광주광역시의회! 주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 등 2건이 선정되었다.

한편, 본선에 진출한 우수사례는 9

월중 광화문 1번가 및 국민생각함을 통한 온라인투표 및 국민체감도와 전문가 2차 심사를 집계하여 10월중 결선에 진출한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결정하고 지방의회 공무원, 주민, 활동가 및 지역단체 등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선발·포상할 계획이다.

김덕윤기자

충남도의회 기경위, 상공인·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8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와 디스플레이센터를 방문해 상공인·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기경위 소속 의원들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인들과 지역경제 활성화, 디스플레이 혁신 플랫폼 구축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상공인들은 해외수출 감소,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자금 수급난 등을 호소하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기경위 위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신 상공인들의 고통에 무거운 마음”이라며 “모두가 힘들지만 결국 지역경제를 다시금 일으킬 주체도 상공인 여러분만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디스플레이센터 입주기업 대표들과는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기경위 위원들은 “충남이 전국 어디에도 뒤지지 않을 산업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며 “최근 각광받고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을 충남이 선점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의 역량 강화 및 기술개발 지원에 아낌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현 위원장(아산4·더불어민주당)은 “간담회를 통해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다면 경제도 살어나고 일자리도 창출되는 좋은 날이 오리라 확신한다”며 “제11대 의회를 마치는 날까지 도내 각계각층과 직접 만나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소통의 정 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근기자

시립중앙도서관 인생도서관 의치다운 의치

지방자치부활 30주년

1,380만 도민을 위한 새로운 시대

경기도의회가 열어갑니다

경기도의회 마스코트 '소원이'

용인시의회, 제26회 양성평등주간 기념 유공자 시상



용인시의회는 8일 제26회 용인시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여 성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여성의 인권 증진 및 양성평등 사회 조성에 이바지한 시민 6명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수상자로 안종희(53, 용인동부경찰서 어머니자율방범대연합회)·장옥자(63, 사)대한미용사회 용인시 처인구 지부)·전소제(53, 다문화여성회)·이태영(62, 희망나눔봉사단)·이현숙(62, 용인소방서 의용소방대여성연합회)·박기화(61, 대한미용사회 용인시수지구지부)씨를 선정했다.

수상자들은 그동안 용인시 각 분야에서 양성 평등문화 확산과 여성의 인권 보호 증진에 노력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됐다.

김기준 용인시의회장은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주시고 그 뜻이 모이는 본회의장에서 수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다”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과 남성의 조화로운 양성평등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용인시의회도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수상자와 관계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조혜영기자

김우룡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장, COP28 부산 유치 지지 선언

지난 7일 오후 백스코 컨벤션홀에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 유치를 위한 부산유치 추진단 발족식이 열렸다.

발족식에는 부산시와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를 비롯해 기업, 유관기관,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COP28 부산 유치 추진단 25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김우룡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장(동래구청장)은 지지선언문 낭독을 통해 “부산의 16개

기초자치단체장은 COP28 행사 개최지로 부산이 최적지임을 확신하며,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COP28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협력하겠다”며 COP28의 부산 유치를 적극 지지했다.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총회에서 COP28 개최국이 결정되며, 이때 한국이 개최국으로 확정되면 환경부가 개최도시를 공모·선정하게 된다.

남궁영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dalyculture.kr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정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주/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가50146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편집국: 02) 2612-2959
팩스: 02) 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서울문화재단, "2021 서울예술교육랩 '질문의 진화'" 개최

포스트 휴먼 시대, 예술교육의 가치와 방향 찾는다



서울문화재단은 예술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가치 탐색을 위한 강연 <2021 서울예술교육랩 '질문의 진화'>를 오는 9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한다.

<2021 서울예술교육랩>은 포스트 휴먼시대에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공존하면서 발전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예술교육의 가치와 예술교육 실천가의 역할을 모색해보는 프로그램이다.

동시대 예술가, 실천가들과 함께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 의해 대상화

됐던 기계, 동물, 물질, 생태 등 다양한 요소에 한 걸음 다가 들어다본다.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오픈 토크」(9.14.~10.13.)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각각 확장 워크숍」(9.23.~11.17.)으로 구분된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교육자, 기획자 등 총 18명이 강사로 참여해 예술교육 실천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강연과 대담을 나눈다.

참여 강사는 강병수(뽀렐로직스 연구소장), 고아침(얼룩소, 데이터 에디터), 권병준(미디어 아티스트), 어라운드랩(김보은·김소은), 김산하(생명다양성재단 사무국장), 김연임(웹진 '춤:in' 편집장), 김영주(툼앤 테일, 게임 디자이너), 김화용(미술작가, 기획자), 박동준(아카이빙 바벨), 박동희(은파산업), 배인숙(하울링 대표), 백용성(미학자, 미술평론가) 여운승(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민경(안무가, 공연예술가), 이소요(미술작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임성연(무소속연극소 대표) 등 18명이다.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열리는 「오픈 토크」는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열린다.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강연인 '동시대 기술문화 지형과 실천적 쟁점'(9.14.)을 포함해 총 4개의 강연과 1개의 대담을 선보인다. 프로그

램당 100명씩 참여할 수 있다.

「오픈 토크」: ▲인간이 기술을 다루는 사유와 접근, 기술 실천의 층위를 모색하는 강연 '동시대 기술문화 지형과 실천적 쟁점'(이광석, 9.14.), ▲예술의 역사를 통해 기술 융복합 예술의 의미와 본질을 고찰하고 미래 예술교육을 살펴보는 강연 'AT(Art Technology)가 TA(Teaching Artist)에게'(여운승, 9.16.), ▲식물이라는 대상의 다양한 삶과 생태를 탐색해보는 강연 '우리가 원하는 식물의 모습'(이소요, 9.23.), ▲안무가와 미디어 아티스트의 작업 사례를 통해 기술의 의미를 짚어보고 서로의 관점을 공유하는 대담 '도킹 찬스 Docking Chance: 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순간'(이민경·권병준·김연임, 10.7.), ▲생태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예술의 역할을 논하는 강연 '야생으로 돌아온 문명'(김산하, 10.13.) 등이다.

줌(Zoom)으로 진행 시 속기를 통한 문자통역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행사 종료 후 자막해설을 포함한 발제 영상 일부를 온라인플랫폼 '노션'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9월 2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열리는 「각각 확장 워크숍」은 서울문화재단대학로(종로구 동숭길 122), 흥릉수목원, 연희정원 일대에서 열린다. 생태, 동물, 물질 감각을 탐색해보고 예술교육 실천가의 역할을 강

화하기 위한 8개의 워크숍을 선보인다. 프로그램당 각각 10명 내외로 참여할 수 있다.

「각각 확장 워크숍」: ▲'처음 만나는 식물'(이소요, 9.23., 9.24., 9.28.), ▲'게임으로 플레이어와 대화하기'(김영주, 9.24., 10.1., 10.15.), ▲'가상현실을 이용해 공간 제작하기: 출입구 없는 공간'(박동준, 10.6., 10.7., 10.8.), ▲'기술 빼고 상상 더하기'(배인숙, 10.14., 10.21., 10.28.), ▲'반려종, 네발로 함께 걷기'(임성연, 백용성, 10.19., 10.26., 11.2.), ▲'플레이그라운드 보드와 탁발블록을 활용한 웨어러블 미디어 프로젝트'(강병수, 10.29., 11.5., 11.12.), ▲'데이터와 창의성의 잠재 공간'(고아침, 11.3., 11.10., 11.17.), ▲'완벽한 폐허에서 시작하는 학습'(김화용, 박동희, 어라운드랩, 11.9., 11.11., 11.16.) 등을 선보인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예술교육 경력이 있거나 앞으로 예술교육 활동을 희망하는 예비 티에이(TA·Teaching Artist, 교육예술가), 예술기획자, 예술교육 관련 기관 종사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2021 서울예술교육랩 '질문의 진화'>는 프로그램별로 일정과 대상, 진행 방법이 다르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 워드코로나시대 세계문화도시간 교류협력제안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지방정부에 워드 코로나 시대 세계 문화도시 간 문화예술 교류 협력을 제안했다.

제주도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제8회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UCLG ASPAC)' 총회에 온라인으로 참가해 문화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화분과위원회 회의는 회원 도시 간 활동사례 및 계획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제주도는 8일 열린 회의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복원 및 국제문화 예술 교류를 위해 진행해 온 제주도의 노력과 2022년 문화예술 활성화 계획을 공유했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 권한대행은 이날 영상으로 진행된 문화분과위원회 회의 개최사를 통해 코로나 19 시대 문화예술의 중요성과 세계 문화도시 간 연대를 강조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문화예술은 위로와 희망을 주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며 "문화예술은 코로나19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삶을 회복하며 일상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원천"이라고 설명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오늘 회의는 문화예술의 가치로 위기를 극복한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귀한 시간"이라며 "세계 문화도시 간 굳건한 연대와 협력은 지속가능한 공존의 미래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UCLG ASPAC 사무국과 총회 개

최도시인 중국 정저우시 주최로 열리고 있는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회복과 지속적 번영'이라는 주제로 본회의(집행부·이사회), 위원회 회의, 부대행사, 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세션을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UCLG ASPAC 이사회 위원 도시로 이사회 참가를 비롯해 문화분과위원회 회의 주제 및 발표, 온라인 3D 홍보부스 운영, 총회 세션 및 기타 위원회 회의 등에 참가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총회 현장 참석이 어려움에 따라 제주도는 온라인 3D 홍보부스를 개설해 회원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주 기본현황부터 자연·문화적 가치, 탄소중립·평화 등 제주도의 주요 정책과 UCLG 활동 등을 홍보한다.

홍보 부스 곳곳에 바다, 들하르방, 야자나무, 돌담 등을 배치해 휴양지로서의 제주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조성했으며, 제주도는 향후 비대면 시대 새로운 국제홍보 방식으로 온라인 부스를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UCLG(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는 국제적으로 자치단체 간 정보와 정책공유 및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유엔(UN) 193개 회원국 중 140개국의 24만여개의 지방자치단체 및 175개 지자체 협의체 등이 회원으로 속해있다.

부평구 여성센터, 비대면 책놀이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부평구여성센터가 10일부터 지역 내 5세~7세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비대면(Zoom) 책 놀이 프로그램 참여자 48가정, 96명을 연령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9월부터 12월까지 반월 매 주 1회, 총 4회로 구성된 1개월 과정으로 사전 독서 후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올바른 독서방향에 대해 전문가인 선생님과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센터에서 제공하는 놀이키트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동화책을 활용한 그림책 놀이(만들기 및 요리 활동 등)를 해보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활동 비용은 무료다.

부평구 여성센터는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월별로 새로운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기존 참가자는 신규 대기자가 없을 경우 진행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접수 가능하다.

부평구 여성센터의 육아나눔터 프로그램은 다양한 육아경험과 정보공유로 육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삼산1동행정복지센터 맞은편 자활센터 5층에 위치하고 있다.

성북구, '찾아가는 생신잔치'로 홀몸 어르신 정서 돌본다

빈곤위기가정 복지플래너가 추천한 어르신 22명 가정방문해 매달 생신 챙겨



성북구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특화사업으로 사회적 고립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생신잔치' 사업을 한다. 빈곤위기가정 복지플래너를 통해 추천받은 어르신 22명의 각 가정에 협의체 위원과 빈곤복지플래너가 방문해 생신케이크와 미역국, 잡채 등 선물을 전달하며 생신을 챙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보편화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홀몸 어르신들의 우울 및 자살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정서적 돌봄망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마을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꼽힌다.

이 사업은 민·관 협력으로 진행된

다.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금과 나눔가게인 푸레주르 중앙노블레스점, 푸레주르 중앙점의 케이크 후원으로 어르신들에게 작은 선물을 전달하고, 안부 확인을 통해 이웃의 소중한 정을 느끼는 돌봄망 관계 형성, 코로나블루 등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인 오○○ 어르신은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아 혼자 쓸쓸히 있었는데 이렇게 동네에서 나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 선물도 주시니 정말 감사하다"면서 협의체 위원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거듭 기쁘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정세균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찾아가는 생신잔치 활동이 우리 동네 홀로 사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적극 발굴, 꼼꼼히 챙겨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1년 하반기 재미있는 그림책놀이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책이라는 그림책이 주는 재미를 느끼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다양한 책놀이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

일정	대상	장소	문의
15:40~18:20 (9월 14일, 10월 11일, 11월 8일)	5세~7세 영유아와 부모 (총 96명)	부평구 여성센터 (부평구 중앙동 4가)	032-509-5042
16:40~17:20 (9월 21일, 10월 18일, 11월 15일)	5세~7세 영유아와 부모 (총 96명)	부평구 여성센터 (부평구 중앙동 4가)	032-509-5042

신청기간: 2021.09.09(화)~2021.12.03(금)
신청방법: 부평구 여성센터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후 접수 (신청서 작성 시 참가자 명부 기재 필수)
신청처: 부평구 여성센터 (부평구 중앙동 4가) / 032-509-5042 (http://www.kcp.go.kr/open_content/woman)

관악구, 인권도시 실현 위한 '관악구 인권영향평가' 첫걸음

관악구가 9월부터 관악구의 모든 자치법구 및 신규정책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권영향평가"는 자치법구 제정·개정 및 정책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누구나 차별 없이 존중받는 인권도시 관악 조성을 위함이다.

이에 따라 구는 제정 또는 개정되는 모든 조례 및 규칙과 5개년 이상 지속되는 신규정책 수립 시 인권영향평가가 평가기준 항목에 따른 검토와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기준 항목은 ▲인권보장 및 침해 ▲인권침해 구제수단 ▲구민참여보장 ▲인권증진 효과 총 4가지 항목이며, 평가결과 인권 침해 요소가 있을 시에는 개선권고를 통해 사전에 구민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요소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과 증진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2021~2024)"을 수립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 및 증진 등 4대 정책목표, 13개 중점과제, 56개 세부 추진과제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인권정책 전문성을 위해 지난해 5월 아동, 여성, 이주민,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관악구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정기회의 개최를 통해 시행계획 추진현황 평가, 내년도 시행계획 제안과제 심의 의결 등 구민 인권 보장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구 관계자는 "관악구 인권 조례 및 인권 4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인권의 가치를 접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확산하여



모든 구민이 차별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사회참여 경험을 촉진하는 '메타러닝'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서울시내 8개교, 200여명의 대학생과 함께 사회봉사활동과 연계한 온라인 멘토링 '메타러닝' 과정을 2학기에 운영한다.

메타러닝(meta-learning)은 학습위의 학습이라는 의미로서 나를 알고 타인을 이해하는 경험학습 과정의 의미이다.

다른 의미로는 메타러닝(meta-learning)으로, 대학생들이 사회봉사를 하면서 함께 미래를 향해 달린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메타러닝' 과정은 코로나19에 따라 대학 사회봉사 참여율의 급격한 감소와 봉사활동의 온라인 전환에 따른 자기표현력 및 참여의식 저하에 따른 대학교 사회봉사 담당자들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국민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협력하여 올해 상반기 동안 대학교의 사회봉사 담당자와 연구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발하였다.

메타러닝 교육과정은 대학생 및 사회봉사 담당자 215명의 설문 및 분석을 통해, 미래사회의 대학생의 필요 핵심 역량 4가지가 도출되었다.

위 4가지 핵심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6단계의 교육과 활동과정이 설계되었으며, 참여 대학생은 경험 활동·교육, 실무교육, 회고 등의 교육과정과 온라인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2021년도 2학기 대학 사회봉사 연계 '메타러닝' 과정에는 8개 대학, 200여명의 대학생이 참여 예정이다.



국민대, 덕성여대, 동국대, 삼육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총신대의 8개 대학, 8개 메타러닝 과정이 운영되며, 메타러닝 교육과정을 이수한 대학생은 멘토링에 배치되어 활동하며 사회참여를 경험하게 된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김의욱 센터장은 "코로나19상황이 2년간 지속되면서 대학생들의 집단적 지성의 토대가 되는 공동의 사회경험이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봉사 활동은 대학생들을 연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공동의 학습과정이 된다. 개별적인 봉사경험을 서로 연결해서 공동의 사회인식으로 발전시키는 메타러닝이 지금 대학사회에 매우 중요하다"라며, "메타러닝 과정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설계해보고 이를 직접 경험하는 과정과 그 순간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청년 세대의 공동의 경험자산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디자인재단, DDP 오픈큐레이팅 vol.18 '진정한 집으로의 여정' 展 개최

DDP 갤러리 문에서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사전예약제로 열려

타인의 시선 너머 자신이 정말 살기 원하는 '진정한 집'을 찾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서울디자인재단은 오는 9월17일부터 10월17일까지 DDP 갤러리 문에서 DDP 오픈큐레이팅 vol.18 <진정한 집으로의 여정> 전시를 연다.

크리에이터를 위한 열린 실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DDP 오픈큐레이팅에서 '집과 디자인 (Design for Home: 거주 공간 그 이상의 집)'을 주제로 '진정한 집'을 찾아가는 12인의 주거 여정을 이번 전시에 담았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도드라지고 있는 교환가치를 가진 물질로 집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과 가족, 그리고 이웃의 가치를 담은 장소로서의 집을 제안한다.

이번 전시의 기획자인 김은영 디렉터는 "우리 시대 가장 어려운 사회문제 중 하나는 '부동산'이 되었고,

집은 사는(거주) 것보다 사는(구매) 것이 더 중요해져 버렸다"며, "경제적 관점을 벗어나 나와 가족의 기억을 담은 그릇이라는 집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었다" 라고 말했다.

전시는 '집의 가치' 중에서도 의식주(衣食住) 그리고 업(業), 락(樂), 휴(休) 등 거주자 개인의 경험과 그로부터 일어나는 마음에 집중한다. 이 과정에서 비 혈연 가족공동체 '오늘공동체', MZ세대를 위한 '엔스테이블' 등 나만의 '진정한 집'을 실현해 가고 있는 12인을 만나며 주거 여정을 나눈다.

메이킹 영상과 책자로 제공되는 퍼소나의 기록은 관람객이 서로 다른 세대, 생애주기, 성별, 가족 구성원, 주거 유형의 표본 안에서 공감할 수 있는 지향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전시는 [집의 본질, 나와 공동체],



[지속가능한 삶과 집], [나에게 선물 같은 집으로의 초대] 그리고 [진정한 집을 만드는 사람들] 총 4개의 테마로 구성된다.

[집의 본질, 나와 공동체] 테마는 집의 본질은 무엇일까?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 테마의 퍼소나들은 운기가 있는

가족과 이웃을 원하고, 혈연이 아니어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아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지속가능한 삶과 집] 테마에서는 탄소배출량과 쓰레기가 쌓여가는 일상에서 생태적 환경과 더불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동네의 환경을 변모시켜 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나에게 선물 같은 집으로의 초대] 테마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알고 '자기다운 집'을 완성해 집이 주는 보이지 않는 가치에 주목하고 있는 이들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집을 만드는 사람들] 테마에서는 진정한 집을 찾아 가는 것을 넘어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이들의 집에 대한 사명감과 기대를 보여준다.

전시장 곳곳에서는 관람객의 생각

을 적은 카드를 걸어 완성하는 '나에게 집이란' 행잉 작품, 어린이를 위한 '집만들기 책체험' 등 개인과 가족 관람객 모두를 위한 참여형 요소가 마련되어 있다.

'리얼홈 프로젝트' 총 4인이 전시를 기획했고 다양한 테마에 속하는 12인의 퍼소나를 SNS와 매거진 등을 통해 발굴한 후 그들의 삶을 관찰해 콘텐츠로 시각화하였다. 이를 통해 전시를 보는 많은 시민이 일상에서 대안적인 주거 공간유형을 탐색하고 진정한 자신의 집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전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시간별 30명의 제한인원을 둔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네이버 예약을 통한 무료 전시로, '밤에 여는 미술관' 컨셉으로 어린이와 가족, 직장인 등 모든 시민을 위하여 12시부터 9시까지 운영된다.

최광수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 LG CNS와 손잡고 AI기반 외국어교육 서비스 도입



인천시교육청은 LG CNS와 「AI기반 외국어 교육 서비스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 관내 530개

AI튜터는 인공지능 기반 언어교육용 앱으로 수십 만개의 영어 문장을 학습한 AI와 학습자간의 단계별 자연스러운 토크플레이싱을 통해 수준별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다.

AI스피킹클래스는 AI 회화 알고리즘과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해 교사가 스스로 맞춤형 AI튜터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으로 대화학습, 패턴 학습 등 원하는 회화 학습과정을 자동으로 제작해 학생들에게 앱으로 배포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7월 AI스피킹클래스 및 AI튜터의 학교현장 도입을 위해 에듀테크 전용 유튜브 채널「듣는다」에서 LG CNS 개발팀이 직접 참여한 공개 강좌를 운영했다.

또 희망하는 초·중·고 학교의 교사 및 학생에게 이용 계정을 발급하고

다양한 챌린지 프로그램 및 외국어 말하기 시범 대회를 운영해 새로운 에듀테크 활용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다국어 언어에 대한 개발 및 실증에 참여해 동아시아 시민교육 및 다문화 학생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AI기반 다국어교육 환경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오늘 협약을 통해 우수한 에듀테크를 공교육 속에 적극 도입해 모든 학생을 포용하는 사람 중심의 디지털 미래교육 초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미래사회 변화 대비" 송파구, 아동·청소년 미래설계 특강

송파구가 아동·청소년들이 주체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행복한 미래설계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대사회가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청소년기 학생들이 미래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해졌다. 이에 구는 송파구 협치위원회와 함께 올해 지역협치과제 중 하나로 이번 특강을 기획했다.

특강은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격주 토요일 오후2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외부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청소년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신성심리, 직업진로, 금융, 건강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했다. ▲9월 11일 이수련 원장의 '슬기로운 관계생활'(인성심리) ▲9월 25일 이동원 교수의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의 IT 유망직종'(직업진로) ▲10월 16일 이임복 교수의 '메타버스 너 누구니?'(금융) ▲10월 30일 최현준 교수의 '슬기로운 건강생활'(건강) 등 청소년기 미래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강 참여 신청은 송파구 아동·청소년 누구나 네이버 폼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회차별로 50명씩 선착순 모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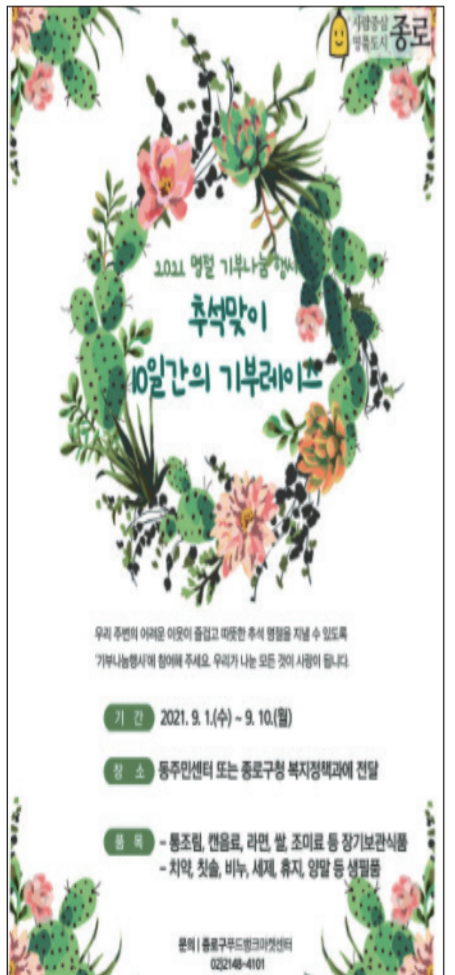
주제	강사	시간
1회차: 인성심리	이수련 원장	2021.09.11 (토) 14:00
2회차: 직업진로	이동원 교수	2021.09.25 (토) 14:00
3회차: 금융	이임복 교수	2021.10.16 (토) 14:00
4회차: 건강생활	최현준 교수	2021.10.30 (토) 14:00

다. 수강비용은 무료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립잠실청소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청소년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삶의 주체가 되는 역량을 키워갈 바란다"며, "앞으로도 송파의 청소년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황규식기자

종로구 '추석맞이 기부레이스' 명절 앞두고 이웃사랑 전해요



종로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웃 간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는 기부 나눔 행사를 추진한다.

지난 9월 1일을 시작으로 이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추석맞이 10일간의 기부레이스는 식료품,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저소득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자리이다.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위로가 될 수 있는 각종 생필품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주민주도형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려는 취지 역시 담았다.

기부 품목으로는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통조림, 캔 음료, 쌀과 같은 식품에서부터 비누, 샴푸, 치약, 젓솔, 세제, 휴지 등의 생활용품이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마스크, 손소독제 또한 가능하다. 단, 실온에서 변질될 수 있는 신선 식품이나 의약품, 기능식품은 제외한다.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길 원하는 주민 누구나 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 내 설치된 나눔 상자에 준비해 온 기부물품을 넣으면 된다.

모아진 물품은 9월 15일 종로구푸드뱅크마켓센터로 전달, 지역 내 저소득 주민들에게 철저한 방역체제 하에 제공 예정이다.

이번 추석맞이 10일 간의 기부레이스와 관련해 더욱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종로구푸드뱅크마켓센터로 하면 된다.

김영중 구청장은 "기부레이스 행사는 2012년을 시작으로 명절마다 구청 직원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10여 년 동안 지속돼 왔다. 나보다 어려운 주민의 이웃에게 정신적, 물질 위로를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인만큼,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광진구, 전통시장에서 저렴하게 장 보고 이벤트도 즐기자!



광진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일부터 22일까지 '2021 추석맞이 전통시장 경품 증정 이벤트'를 개최한다.

행사기간 동안 ▲중곡제일 ▲자양전통 ▲영동교 ▲노론산 ▲화양제일 ▲능동로 ▲면곡골목시장 등 관내 7개 전통시장에서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수음식을 판매하며,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행사를 실시한다.

우선 면곡시장에서는 8일부터 3만 원 이상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5천 원 상당의 시장 이용 쿠폰 또는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여 즐거움을 선사한다.

또한 화양제일시장은 14일부터 2만 5천 원 이상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중곡제일시장은 10일, 자양전통·능동로 시장은 16일부터 3만 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5천 원)을 증정한다.

더불어 영동교시장은 12일부터 2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 한 해 금액

8~22일까지 광진구 내 7개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이벤트 개최

별로 시장 쿠폰을 지급하고, 노론산시장은 15일부터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사은품 증정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번 전통시장 이벤트는 행사기간에 상관없이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중곡제일시장과 자양전통시장은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해 배송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배송 주문을 원하는 주민은 각 시장 상인회(중곡제일시장, 자양전통시장)에 전화 주문을 하면 가정에서 물품을 바로 받아볼 수 있다.

이밖에도 전통시장 방문 이용객을 위해 노론산, 능동로, 영동교 골목시장 주변 도로 허용구간에 2시간 이내로 주차가 가능하다.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4개소(동서울도호텔길, 송림기차식당길, 중곡 북개천길, 자양유수지)도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려운 시기에도 추석을 준비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전통시장에서 저렴하게 장도 보고 선물 받는 재미와 정도 느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몸은 멀지만 마음은 가까운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금천구 다양한 공유자원, '공유누리'에서 신청하세요

금천구는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공공개발 자원 통합플랫폼 '공유누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유누리'는 전국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 물품 등 공유자원을 주민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공유서비스 포털이다.

구는 개방 가능한 유휴공간을 조사하여 지난해부터 '공유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실, 강의실, 주차장 등 69개의 공유자원을 개방하고 있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공유누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원하는 금천구 공유자원을 선택하고 예약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금천구의 다양한 공공자원을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공유누리에 등록해 개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유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유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성기자

성남시, 추석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43곳 안전 점검



성남시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9월 15일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벌인다.

대상 시설은 추석 연휴(9.18~22)에 많은 사람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야탑동 성남종합버스터미널과 대형마트 12곳, 전통시장 30곳 등 모두 43곳이다.

시는 각 시설의 건축물 손상·균열·누수 등 결함 여부, 피난 통로 확보 여부, 가스·누전 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소화 설비 관리 상태 등을 살핀다.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 점검한다.

이 점검은 지난달 26일 야탑동 성남종합버스터미널부터 시작돼 이날 유도동 점등 불량,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도시가스 개별 사용시설 관리 미흡 등 14건을 바로 잡았다

다른 시설도 안전 점검 과정에서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시정해 재난사고를 예방한다.

즉시 고치기 어려운 시설물은 보수, 보강토록 시정 명령한 뒤 위험 요인을 없애 때까지 추적 관리한다.

이성용/기자

진주교육지원청, 빈틈없는 방역점검 '현장방역책임제' 동참



진주교육지원청은 7일 경상남도청, 진주시청과 합동으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을 대상으로 빈틈없는 방역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상남도에서 현장 방역점검 체계를 업종별 맞춤형으로 바꿔 점검의 실효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전 부서가 방역대상 시설을 분담해 책임 점검하는 부서책임제의 일환으로 진주교육지원청이 이에 동참하여 실시되었다.

합동 점검반은 최근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과 더불어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상황 종료 시까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방역 동참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였다.

김성준 행정지원과장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부서책임제에 적극 동참하여 방역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교육지원청에서는 방역 예방수칙 준수 철저를 위해 자체 인원으로 2인 1개조로 편성하여 최근 3개월 이내 미점검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 출입자 명부 및 손소독제 비치, 방역수칙 게시, 환기 및 소독실시 여부 등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최광용/기자

순창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이행점검으로 부정수급 방지

순창군이 이달 말까지 올해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공익직불 신청인 중 자격기준을 충족한 농가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검증하여, 직불금 부당 수령을 방지하고 국가보조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점검 대상은 농자재 구매 이력이 없는 신규신청자 및 관외 경작자, 농림사업 불일치자, 장기 요양등급가입자, 의도적 농지 분할 등록자 등이다. 점검은 군 자체 점검을 비롯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합동점검도 병행해 이뤄진다. 점검결과 부정한 신청이나 등록이 확인된 경우 등록 취소와 그에 걸맞는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농업농촌공익

증진 교육이수, 비료의 적정보관 및 관리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하며,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마을공동체활동도 참여해야 한다.

마을공동체활동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건강하고 더불어 행복한 마을 주민’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는 미이행할 경우 주의장 발부로 그치지만 내년부터는 감액 조치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진영무 소장은 “직불금 부정수급에 대한 농업인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며 “준수사항 이행을 반드시 지켜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기타 기본형 공익직불제 관련 문의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순창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선수/기자



홍성군, '불법 밤샘주차 이제 그만!' 야간 불법주차 집중단속



대형 화물차,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 영업용 대형차량 중심 단속나서...

홍성군이 불법주차와 밤샘주차 문제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형 화물차,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 영업용 대형차량의 불법주차 및 차고지 이탈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9일 군에 따르면 경성·부영아파트, 역재방죽 택지개발지구 일원 도로 등 홍성을 내 주택가 도로와 내포신도시 중흥아파트 후문부터 내포·가람유치원에 이르는 이면도로 일대에 대한 집중 단속과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민원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며 불법주차 근절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차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하지 않고 아파트 밀집지역 및 도로변에 밤샘주차한 영

업용 차량과 건설기계이다. 다만 홍성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 면제조례 제3조.의 규정 에 의거『개인택시, 개별운달, 1.5톤 이하 개별화물』등 생계형 소형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번 단속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최초 위반차량 촬영 뒤 1시간 경과 후 2차 촬영하여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하며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는 등등록 과외 후 관내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과징금(10~20만원) 및 과태료(5~30만 원)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위반행위 적발사항과 증거자료를 해당 관청에 이관조치할 예정이다.

육현근 건설교통과장은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차고지에 주차할 것”을 당부 하였다.

고정화/기자

장흥군, 추석 명절 포장제품 재포장 및 과대포장 집중 점검 실시

장흥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재포장 및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행위와 선물용 주류, 제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종합제품) 등으로 포장 횟수(품목별 1차~2차 이내)와 포장 공간 비율(품목별 10%~35% 이내) 준수 여부 등 포장방법 준수 여부에 대하여 점검한다.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에 비해 포장지 지나친 제품과 제품 판매 과정에서 또 다른 포장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재포장하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흥군은 “재포장 및 과대포장은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이를 억제할 계획이다”며 “군민들이 적정 포장된 제품을 구매해 환경 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길/기자

AI Artificial Intelligence

교육도시 오산

'청년, 성남을 만나다' 성남청년주간9월9~18일 운영

성남시는 9월 18일 청년의 날을 기념하며 '2021년 성남 청년주간'을 성남시청 및 청년지원센터 등 청년공간에서 비대면 위주로 9일부터 18일까지 개최한다.



청년을 위한 문화조성 및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다. 지난해 8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청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청년주간 행사로 '청년의 날 기념 온라인 공감토크'를 메인 행사로 청년의 감수성을 반영한 2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이번 청년주간행사는 9월 10일 성남시 첫 청년참여형 기구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출범식을 시작으로 18일에는 '기후위기 대응, 우리의 역할과 과제' 전문가 포럼을 진행한다.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문제에 대해 함께 소통하고 청년들이 제안하는 정책제안 프로그램으로 9월 11일 청년 타운홀 미팅, 13일에는 '청년 아이디어톤 대회' 발표회, 청년지원센터 판교의 개관 100일 챌린지 '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등 청년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판교역에 청년지원센터 개소에 발맞춰 청년공간과 함께 성남청년 활동박람회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신홍역의 청춘상당소, 청년로드뷰, 취미제작소,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판교의 팝작클래스, 팬텀아 청년이야, 오늘은 같이 먹어요, 청년예술창작소 청년예술 시각 릴레이 전시, 청년예술창작소로 모여라, 성남시지원봉사센터 '수다 떠는 청년식당' 등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수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성과 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20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가장 높은 점수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던 수원시는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실적(1월 1일~6월 30일)을 점검했다.

1차 심사에서 ▲사전컨설팅 처리건수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실적 ▲우수공무원 선발 인원 ▲인센티브 부여 실적 ▲중점과제, 의견제시, 사전컨설팅 추진 현황 등 5개 부문의 적극행정 추진실적을 평가해 부문별 순위를 산정했고, 2차 심사에서는 민간전문가와 행안부·국무조정실 공무원으로 구성된 '성과점검심사단'이 실적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3개 광역자치단체·6개 기초자치단체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자원순환공유시스템! 대화용 포장재 사용 시범사업'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 최초! 자동결제와 마일리지 적립 가능 '수월e택시' ▲광역(시)지 서비스 수준 연인형 스마트 안전 서비스 구축 ▲사각지대 Zero! 안심보금자리 Suwon-홈즈! 등 7개 사업을 우수사례로 제출했다.

수원시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활하게 행정을 추진했다. 수원시 적극



행정위원회는 상반기에 공직자가 의견 제시를 요청한 안건 중 3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의견을 제시한 안건은 ▲감염병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아동수당·양육수당 소급 지급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휴업 기간 의료인력 특별수당 지급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업무량 초과 업무가산수당 지급 등이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는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을 지원·보호하고, 공무원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는 사안에 대해 감사기관에 사전에 관련 규정 해석을 요청하는 '사전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속한 행정을 지원했다.

수원시는 올해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와 시민의 확실한 체감'을 비전으로 하는 '2021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적극행정'을 선도하고 있다.

2021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추진체계·역량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지원 강화', '소극행정 척파' 등 4개 분야 28개 세부이행과제, 14개 '중점추진과제'로 이뤄져 있다.

중점추진과제는 ▲자원순환공유시스템! 대화용 포장재 사용 시범사업 ▲전국 지자체 최초! 자동결제와 마일리지 적립 가능 '수월e택시' ▲코로나 우리 함께 극복해요!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센터 ▲수출 판로개척 밀착지원으로 기업애로 걸림돌 해결하다! ▲전국 최초! 해외수입 고액채널자 증권·펀드 보유조사 체납 처분 ▲코로나19 농동감시 모니터링, 전국 최대 규모로 AI와 협력하다 등이다.

'자원순환공유시스템! 대화용 포장재 사용 시범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고, '전국 지자체 최초! 자동결제와 마일리지 적립 가능 '수월e택시'는 수원시 2021 상반기 '최우수 적극행정'으로 선정됐다.

6월에는 '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한 대화용 수송 포장재 시범사업'·'시내버스 불편사항 큐알(QR)코드로 신고하세요' 등 수원시 적극행정 사례 2건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맛집'에 선

정됐다.

업체영 수원시장과 수원시는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적극행정 관련 모든 자치법규를 정비했고,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사전컨설팅, 면책제도 등을 운영해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을 지원·보호한다.

또 자체적으로 상·하반기에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시상하고, 인센티브를 수여한다.

지난 2월 25일에는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 '3월 중 확대간부회의'에서 '적극행정 실천 다짐행사'를 열고, 업체영 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모든 공직자가 '적극행정 실천'을 다짐했다.

6월에는 '수원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5개 사업을 기획한 공직자 6명을 선발해 성과급 최고등급과 실적 가점, 표창,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하반기에도 서면심사, 온라인투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할 계획이다.

조성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을 인사에서 우대하고, 의견제시·사전컨설팅·면책제도를 활성화해 공직자의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공직사회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혜영/기자

시흥시, 시민이 함께 만드는 복지국가를 향한 걸음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온라인 기념식'



시흥시는 지난 9월 7일 법정기념일인 사회복지의 날과 사회복지 주간을 맞아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온라인 기념식은 기념·축사와 사회복지의 날 기념 영상, 기념 강연 "관객에서 참여자로 : 시민이 함께 만드는 복지국가" 등의 다양한 영상으로 가득 채워졌다. 특히, 시의 11

개 사회복지기관 39명의 사회복지종사자가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는 사회복지사업 유리선언문 낭독이 눈길을 끌었다.

리은주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물론, 종사자의 역할도 점점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복지자를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자긍심을 갖고 활동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병택 시흥시장은 "50만 대도시에 걸맞게 더 견고하고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흥시민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와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번 온라인 기념식은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 유튜브 채널(유튜브에서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 검색)을 통해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

원준균/기자

성남교육지원청, '다시, 삶의 지혜와 교육의 희망을 노래하다 II. '2학기 교사 연수 실시간 유튜브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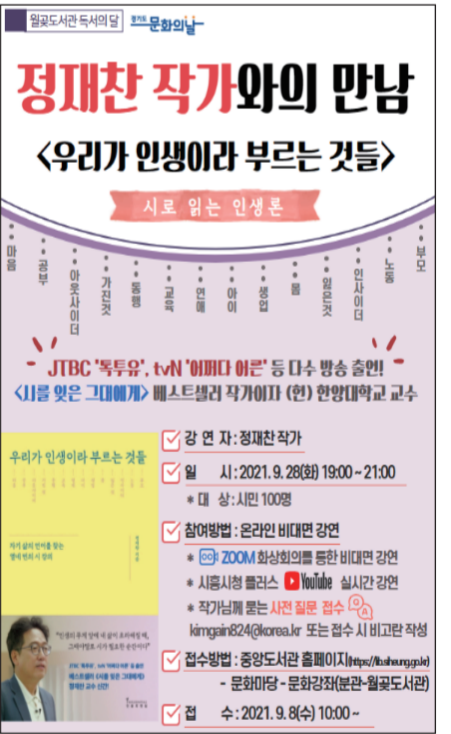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9월 9일 수요일 15시부터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희망교사들을 대상으로 "다시, 삶의 지혜와 교육의 희망을 노래하다 II"라는 주제로 교사연수를 유튜브로 진행하였다.

이번 교사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대면연수와 학교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의 어려움으로 교사들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목적이다.

학교현장의 교사들이 2학기 수업과 생활지도에 필요한 연수지원으로 '슬기로운 생활교육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생활인권교육 강좌와 '미디어리터러시, 즐긴다 미디어를! 키우다 생각을! 누리다 세상을!'이라는 주제로 미래교육 강좌를 선택강좌로 준비하였다.

이성윤/기자

시흥 월곶도서관, 코로나19에 지친 일상을 위로할 정재찬 작가와의 만남 열어



시흥시 월곶도서관에서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오는 28일 '시를 읽는 그대에게'로 많은 사랑을 받은 한양대 정재찬 교수를 초청해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저자 특강을 진행한다.

정재찬 교수는 '시를 읽는 그대에게'로 독자들에게 시 읽는 기쁨을 알려준 베스트셀러 작가다. 이번 강연은 '마음, 공부, 가진 것, 교육, 연애 등' 열네 가지의 인생 이야기를 시와 함께 담은 에세이집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관련 특강이다.

이번 특강은 작가의 시로 읽는 인생론 이야기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일상을 따뜻하게 되돌아보며 독서·문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위해 마련했다.

강연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화상회의시스템 줌(Zoom)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9월 28일 강연 당일에는 유튜브 채널 '시흥시청 플러스'에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게 소통채널로 활용할 예정이다.

원준균/기자

안산시, 코로나19 위기아동 급식비 한시적 지원 사업 추진

안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코로나19 위기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아동이 대상이나, 소득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결식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아동급식비 한시지원 신청 및 상담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되고, 아동 본인과 보호자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

▲학교장, 통·반장, 아동급식위원 추천 ▲시민단체·자원봉사단체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급식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에게는 3개월간 ▲도시락배달 ▲지역아동센터 급식소 이용 ▲GR카드(대부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급식이 지원되며, 사업 종료 후에는 아동급식위원회를 거쳐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의 결식아동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동의 심신이 모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정무/기자

경기도교육청이 9월부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누리집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누리집은 '경기교육모아' 누리집과 통합 운영하며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 다문화교육 담당 교원들이 참고·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와 교육정보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육(지원)청을 연계해 교육정책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창구가 될 전망이다.

특히, 누리집 구성 내용과 탑재한 문자 기반 자료는 33개 언어로 열람이 가능해 우리말 사용이 쉽지 않은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들의 접근성, 현장 교원들의 활용성이 높다. 도교육청은 다문화교육 대상 학생이 늘어나면서 학교에서 학생을 교

육하고 학부모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종합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

또, 누리집 활용도를 높이고자 다문화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원 중심으로 누리집 전담 추진단을 구성해 현장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

도교육청 강심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에게 무엇보다 절실했던 정보 공유와 소통이 언어 장벽 때문에 그동안 어려웠다"면서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누리집 운영으로 모든 교육가족이 교육정보를 공유하고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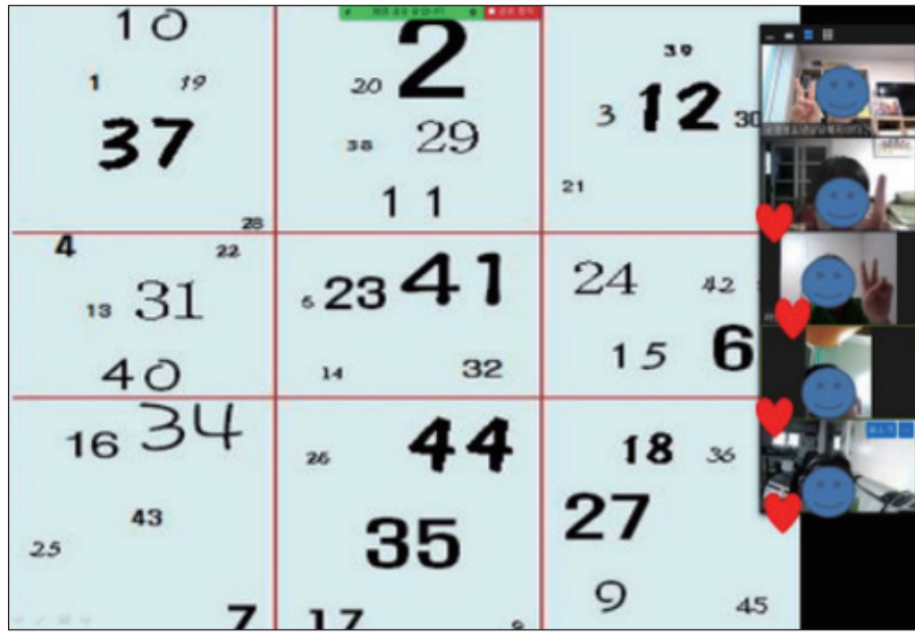
한편, 올해 4월 1일 기준 경기도 초·중·고 다문화가정 학생은 전국 160,056명 가운데 40,667명이며,



2020년에는 전국 147,378명 가운데 36,411명이었다.

조혜영/기자

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비대면 집단상담 운영



광명시청소년재단 산하 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선용 온라인 집단상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은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대상자 발굴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로 사용하는 어플과 이용시간 등을 점검함으로써 자기조절력을 키우고, 대안활동을 찾을 수 있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지난 8월부터 총 4개 집단(24회기, 48시간)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비대면으로 집단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스마트기기의 발달로 서로 만나지 않고 또래 간에 소통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

정을 공유할 수 있는 유용성과 편리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 청소년의 보호자는 “방학동안 스마트폰만하며 놀았을 아이가 집단상담에 참여하며 자기 스스로 사용량을 조절하게 되었다”

며,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활용을 부모가 다 알기 어려웠는데 여러 가지 사례를 알게 되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통해 발굴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가심리검사, 개인상담 등과 같이 전문적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만식기자

안성시, 물 절약 홍보 전단지 제작해 배부



안성시는 생활 속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물 절약 생활수칙' 홍보에 적극 나서며, 생활 속 물 절약 실

천방법을 담은 전단지를 제작 및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성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1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각각 100장~400장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다.

홍보내용으로는 △설거지등에 몰아서 설거지하기 △세탁물 모아 한번에 세탁하기 △양변기 수조에 물 채운 페트병 넣기 △절수기능 있는 샤워기 사용하기 △물을 받아 사용하고 수도꼭지 꼭 잠그기 등을 수록하고 있다.

절수기능이 있는 설비와 기기에 관한 사항은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오래된 수도설비와 수도기기는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샤워헤드나 변기교체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매년 지속적으로 홍보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물 사용량 절감에 기여하고 실질적인 생활 속 물 절약 실천으로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혜영기자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예방 보드게임 개발 및 보급으로 비폭력 학교문화 조성



재단법인 고양시청소년재단 산하 기관인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심각하게 대두되는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강의식 위주가 아닌 놀이를 통해 체험과 학습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콘텐츠 친구를 사랑할 고양 보드게임을 개발하였고, 9월부터 고양시 관내 초·중·고

교에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이다.

보드게임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학교폭력 사례에 대해 감정, 자각, 행동카드를 플레이하면서 피해자, 가해자, 방관자의 입장이 되어 생각과 감정을 나누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소통하고 공감하게 된다. 학교폭력에 대해 새로운 인식, 태도, 대처방법 등 인지, 감정, 행동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어 학교폭력의 방관자에서 방어자로 전환하여 폭력없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2021년 9월부터 고양시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급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2교시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센터 상담지원팀으로 하면 되고 신청서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놀이학습 형식의 흥미로운 교육 콘텐츠 보급으로 지역에서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학교폭력 근절에 이바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영기기자

안산시, 추석 앞두고 코로나19 특별방역 캠페인 실시

안산시는 8일 추석을 앞두고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 일원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봉사자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된 캠페인단은 방역수칙이 적힌 어깨띠를 매고 5명씩 4개조로 나뉘어 다문화특구 구석구석을 돌며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을 홍보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 벤치 및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소독도 함께 실시했다.

봉사에 참여한 봉사자는 시민 15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봉사단체로, 어르신 식사봉사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성수재 플랫폼사회장은 “추석을 앞두고 의미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라며 “회원들과 함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한편, 스스로도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화섭 시장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하루 평균 1천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추석명절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고향방문을 자제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안전한 안산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유튜브 힐링 토크콘서트 개최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해 의정부 시민 대상 유튜브 힐링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생명사랑 토크콘서트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구성된 인기 유튜브 '뇌부자들'이 '생명사랑, 정신건강'이라는 주제로 강연과 함께 정신건강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토크콘서트는 전화문의 혹은 QR코드를 통한 사전접수 후 URL 링크를 문자로 받아 행사 당일 시청할 수 있으며, 사전접수 및 설문지를 작성한 분들을 추천하여 소정의 상품도 지급한다.

토크콘서트 강연자 '뇌부자들'은 '어쩐지, 도망치고 싶더라니', '어쩌다 정신과 의사'의 저자로서, 여러 방송 출연과 영상을 통해 "정신과 의자들의 진짜 정신과 이야기"를 전달하며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장영국 의정부시보건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많은 시민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힐링에 도움 되시기를 바라며, 심리지원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경남도, '부울경 메가시티 상품권' 16일 20억 원 발행

동래구, 동래사직단 사직제 봉행

부울경 메가시티 체감 및 경제 공동체 인식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



경상남도는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 상품권이 16일 오전 10시에 발행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 제안으로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발행하는 메가시티 상품권은 20억 원 규모로 5% 할인 판매되며, 대규모·중대규모 점포 및 사행·유흥업소 등 일부 점포를 제외한 3개 시도 제로페이 가맹점(경남의 경우 경남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메가시티 상품권의 1인당 구매한도는 20만 원이며 사용기간은 1년이다.

올해 1월부터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는 수도권 집중 해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인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7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출범하였다.

합동추진단은 시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무와 3개 시도의 통합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 발굴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메가시티 상품권 이 그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가시티 상품권은 단일 지자체 권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상품권과 달리 전국 공통 모바일 결제 수단인 제로페이를 기반으로 부산·울산·경남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므로, 3개 지역을 넘나드는 공동된 상품권 사용을 통해 시도민이 메가시티를 체감하고 부울경이 경제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기에 매우 적합하다.

수수로 부담을 덜어주는 제로페이 가맹 기반을 더욱 확대할 수 있어 경남도의 제안을 전격 수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김형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메가시티 상품권은 제로페이 상품권이 가진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결제수수료 부담완화라는 두 가지 효과에 더불어 부울경 메가시티를 시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일석삼조"라며 "이번 발행을 계기로 3개 시도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더욱 공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메가시티 상품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로페이 상품권 앱(비즈플레이, 경남지역상품권, 부산은행, 농협 올원뱅크 등)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 동래구는 지난 7일 오전 11시 동래사직단에서 사직제 봉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직단은 나라·지역의 태평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토지신인 '사(社)'와 곡식신인 '직(稷)'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쌓은 제단이다. 구는 사직동 351-11번지 일원에 표석으로만 남아있던 동래사직단을 32억 6600만 원을 들여 지난 2월 복원 완료했다.

동래(부산)사직단은 1530년(중종 25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동래현의 서쪽에 있었다고 한다. 1740년(영조 16년)에 편찬된 『동래부지』에는 1640년(인조 18년) 동래부사 정호서가 다시 사직단을 건립했고, 현종 때 동래부사 이하가 개보수 했으며, 1709년(숙종 35년)에 동래부사 권이진이 지금의 위치로 옮겼다는 기록이 있다.

동래(부산)사직단은 1530년(중종 25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동래현의 서쪽에 있었다고 한다. 1740년(영조 16년)에 편찬된 『동래부지』에는 1640년(인조 18년) 동래부사 정호서가 다시 사직단을 건립했고, 현종 때 동래부사 이하가 개보수 했으며, 1709년(숙종 35년)에 동래부사 권이진이 지금의 위치로 옮겼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 건국 후 전국의 군현에 사직단을 건립하고 지방관이 제사를 주관하게 했다. 사직단 제사는 왕의 교화가 해당 지방에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는 의례다. 조선 시대에 제사는 중춘(음력 2월)과 중추(음력 8월) 두 차례 봉행하였는데, 동래구는 서울 사직대제의 예에 따라 8월 상무일(上戊日)에 한 차례만 봉행한다. 상무일은 10간 중 상순에 무(戊)가 들어가는 날을 말한다.

이번 사직제의 초헌관은 김우룡 동래구청장, 아헌관은 주순희 동래구의회의장, 종헌관은 윤희철 동래향교 부전교가 각각 맡아 봉행했다. 초헌관은 제향 때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제관이고, 아헌관은 두 번째, 종헌관은 마지막 술잔인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제관이다.

김우룡 구청장은 "동래사직단 복원으로 역사와 문화의 고장인 동래에 새로운 역사가 생겼다"며 "앞으로 동래사직단 복원이라는 하드웨어에 사직제 봉행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더해 옛 전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직3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9월 2일부터 주민들의 염원으로 복원된 사직단의 과거와 현재, 공간 구성, 다른 지역의 사직단과 비교 등 '우리 마을 사직단 알아보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직제의 초헌관은 김우룡 동래구청장, 아헌관은 주순희 동래구의회의장, 종헌관은 윤희철 동래향교 부전교가 각각 맡아 봉행했다. 초헌관은 제향 때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제관이고, 아헌관은 두 번째, 종헌관은 마지막 술잔인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제관이다.

김우룡 구청장은 "동래사직단 복원으로 역사와 문화의 고장인 동래에 새로운 역사가 생겼다"며 "앞으로 동래사직단 복원이라는 하드웨어에 사직제 봉행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더해 옛 전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직3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9월 2일부터 주민들의 염원으로 복원된 사직단의 과거와 현재, 공간 구성, 다른 지역의 사직단과 비교 등 '우리 마을 사직단 알아보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최광용/기자

남궁영/기자

함양군, 산삼엑스포 맞이 '줍깅' 환경정화 캠페인 진행

엑스포와 함께 가볍게 산책하며 쓰레기도 줍고, 내달 15일까지 '위드 엑스포! 줍깅! 캠페인'

함양군이 2021 함양산삼향화엑스포와 함께 시가지 청결운동 '위드 엑스포! 줍깅! 캠페인'을 엑스포 기간을 앞뒤로 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한다. '위드 엑스포'는 엑스포와 함께 일상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줍깅'은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뜻하는 것으로, 가볍게 산책을 하며 거리의 쓰레기를 주워 환경과 동시에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새로운 환경정화 캠페인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수가 집합하는 대규모 환경정화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기획된 이번 캠페인은, 산삼엑스포를 치르는 한 달여간의 일

상 속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손을 보태어 함께한다는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깨끗하고 살기 좋은 함양의 본 모습을 가꿀 수 있는 시간도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 관계자는 "비대면 '줍깅' 활동은 쓰레기를 주워 담을 봉투 외에는 특별한 장비나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고, 혼자서도 참여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함양엑스포가 일상이 되는 이 시기에 누구나 쉽게 우리 사회를 향한 봉사정신을 작게나마 실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병철/기자

진주푸드마켓,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기부 날 행사 개최

진주푸드마켓은 지난 7일과 8일 양일 간 진주혁신도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기부 날 행사를 열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임직원 1430여 명은 출근길에 가정에 있는 쌀, 라면, 비누 등의 식품 및 생필품을 가져와 본원 로비에 마련되어 있는 '나눔 바구니'에 기부했다.

기부 물품은 유통기한 등 검수 과정을 거쳐 진주푸드마켓에 비치하여 진주시 관내 긴급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앞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릴레이 기부 행사로 추진될 계획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기부 행사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결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요즘 나눔을 실천해 주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임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푸드마켓은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기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이나 가정에서 기부받은 식품, 생필품 등을 저소득층이 직접 매장을 방문해 가져가는 이용자 중심의 나눔 공간으로, 식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후원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 단체는 진주푸드마켓(747-13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광용/기자

창원시, '2021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참가

도내 유일 홍보관 운영,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산단 세계에 알려



창원시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하는 '2021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 참가하여 홍보관을 운영한다.

'2021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스마트시티 전문 박람회로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분야 대표 국제행사이다.

올해 행사에는 180여개 지자체 및 기업 등이 참가해 '스마트시티: 현실이 된다(See R.E.A.L YOUR SMART CITY)'라는 슬로건으로 개막식, 스마트시티 전시 및 체험, 키퍼런스 및 세미나, 비즈니스 행사, 국민 참여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시는 'Smart 창원, 도시를 잇다'라는 주제로 경남 지자체 중 유일하게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그린산단, 감소연구개발특구, 발달장애아동 스마트 안심케어 서비스, IOT기반 스마트 방문간호 서비스, 수소연료전

지 자전거 등 창원형 스마트시티 서비스 등을 전시하고 있다. 방문객에게 기념품 및 홍보 팸플릿을 배부해 스마트 선도도시 창원을 알리고 있다.

이번 엑스포 참가로 국내 스마트시티 산업 정보를 공유하고 선진 사례 벤치마킹으로 창원형 스마트시티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스마트시티는 한국형 뉴딜정책의 핵심으로 '2021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참가를 통해 창원형 스마트시티를 국내외에 홍보하고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해 스마트시티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궁영/기자

울산 남구, 'SNS 관광모니터'발대식 이후 성과

울산 남구는 다시 찾고 싶은 남구 관광활성화를 위해 'SNS 관광모니터'를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 대학생과 일반인 18명으로 구성된 'SNS 관광모니터'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남구 관광지, 축제의 불편 및 개선사항을 발굴, 신고하는 관광파수꾼 역할을 수행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관광서비스를 개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SNS 관광모니터'는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시설, 장생포문화창고, 선암호 수공원, 신화마을, 태화강 철새공원 등 남구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91건의 활동을 했으며, 개인SNS(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 방문한 관광지의 길거리, 볼거리 등 직접 체험한 후기로 남구 관광지를 홍보했다.

SNS 관광모니터의 시설 개선사항을 해당 부서에 전달하여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고, 9월중 'SNS 서포터즈', '블로그기자단'과 함께 'SNS 관광모니터'활동에 필요한 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SNS 관광모니터의 개선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여 관광하기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고, 관광파수꾼 역할을 수행하



김기현/기자

거제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상수도 분야우수'등급 획득

거제시가 9월 6일 발표된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상수도 분야 「우수」등급(「나」등급)을 획득했다.

거제시는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등 3개 분야 20여 개의 세부 지표가 활용된 이번 평가에서 경남 지역 내 양산시(최우수 등급)·사천시(우수 등급) 등과 더불어 뛰어난 성적을 거두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우수한 성과를 낸 지방공기업에 높은 등급이 부여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상수도 요금 한시 감면을 전격 시행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선 점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된 발판으로 작용한 셈이다.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변광용 거제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시 요금 감면을 통한 지역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 등 지방공기업의 책무를 다한 적극적인 위기 극복 대응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라면서, "앞으로도 상수도 공기업이 경영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우뚝 서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영훈/기자



대구시, 귀여운 도달쭈 추석인사 이모티콘, 무료로 나눠드려요~!

대구시, 9월 10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만 5천명 무료 배포

대구시는 인기 급상승 중인 도달쭈의 추석인사 이모티콘을 제작해 9월 10일 오후 2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선착순 45,000명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대구시가 제작한 '추석맞이 도달쭈 이모티콘'은 추석에 많이 사용하는 명절 안부인사 문구와 각 상황에 어울리는 '~대구' 어투, 일상생활에 활용도가 높은 감성표현 동작 등 총 16종으로 구성했다.

이번에는 도달쭈와 컬러풀 프렌즈가 함께하는 이모티콘으로 '마스크 쓰GO! 백신맞GO!', '우리 집으로 가자' 등 일상방역과 백신접종 홍보에 시민들이 공감할 콘텐츠를 제작해 코로나19로 힘든 일상을 보내는 시민들에게 도달쭈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연휴를 보내기를 기원하는 모습을 담았다.

이모티콘을 받는 방법은 카카오톡 친구 검색 메뉴에서 '대구시청'을 검색한 후 채널을 신규로 추가하면 선착순 45,000명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이후 30일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시 홈페이지에서도 이모티콘 파일을 받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올 2월에 배포한 새해인사 이모티콘은 배포한 지 3시간 만에 조기 마감되는 등 도달쭈 이모티콘의 열기가 뜨거웠다.

한편 친근한 이미지로 코로나19



방역수칙 홍보, 대구행복페이 등 다양하게 활용되는 '도달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한 '제4회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 지역 부문에 참가해 6:1의 경쟁을 거쳐 본선에 진출했고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권기동 대구시 홍보브랜드담당관은 "추석맞이 도달쭈 이모티콘은 코로나19로 직접 만날 수 없는 가족, 지인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을 기원하는 메시지로 구성했다"며, "거리가 멀어도 마음만은 풍성한 추석을 보내기 위한 소통의 메시지로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도달쭈는 인스타, 틱톡 등 자체 SNS 채널을 신설해 일상을 공유하고 시민들과 더욱 친근하게 소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1급수에서 2급수로 격상되는 수달이 도심 신전에 살고 있는 대구의 쾌적한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남궁영기자

울진도서관, 울진초등학교로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 운영



경상북도교육청 울진도서관은 7일부터 울진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연계사업의 일환인 '나의 이야기 자서전'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그림책과 함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글쓰기를 하면서 참모습을 발견하고, 나아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의 힘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지현주 관장은 "그림책에 들어갈 내용을 학생들이 직접 구성하는 것은 물론, 글쓰기부터 시작해 하나의 책이 완성되어 출판되기까지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달 30일에는 울진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사계절 생태 캠프' 및 '새내기왕 세종의 저자인 권오준 작가 초청 강연이 개최될 예정이다. 김기현기자

경상북도 이철우도지사, 영덕시장 없는 것 빼고 다 지원하겠다.

7일 긴급대책 회의, 미래 비전 전통시장 육성 전략 수립 지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4일 발생한 영덕시장 화재를 계기로 미래 비전 전통시장 육성 전략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경북도는 23개 시군 중 78%인 18개 시군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화재가 발생한 영덕도 인구소멸 위험지수가 0.17로 수십 년 후에는 지역이 사라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경북도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지역 균형발전의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해 미래 비전을 담은 전통시장을 새롭게 만들기로 하고,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해 2024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시장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설계하는 영덕 명품시장은 디지털 선진국에 맞게 최첨단 시스템인 RFID(무선식별시스템), 스마트 미러, 키오스트, 드론 배달 등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명품시장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생산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을 투명



하게 볼 수 있는 상품 이력제를 구축하고, 시장 내에 상품 품질관리 연구소를 만들어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상품과 디자인 개발에 노력하고 배달시스템도 갖출 계획이다.

또한, 동해안 700리 길을 따라 이어진 관광·문화를 전통시장에 접목해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시장을 만들 계획이다. 박물관·전시관, 아름다운 휴게공

간과 지역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로 구상하고 있다.

한편, 전통시장 건립은 공모를 통해 옛것과 새것의 조화로운 모습을 갖춘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조성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소방 안전 문제를 디자인적 관점에서 설계하고 건물 구조와 시설

배치가 화재예방과 진압에 적절한지 고려해 설계를 발주할 것이다.

시장의 성공은 아름다운 건물과 콘텐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상인과 지역주민이 설계에서부터 함께 손잡고 나갈 때 가능한 일이다.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상인들의 교육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전통시장 방문객 1000만 시대를 열고, 세계 10대 전통시장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또한, 정부 시책에 발 맞춰 상권 르네상스사업, 문화관광형 사업, 청년몰 사업 유치를 통해 젊은 청년 상인을 유치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위로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시장을 건립할 것"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최첨단 디지털 전통시장으로 만들기 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세기기자

경주시 환경미화원,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등 복합업무 수행

주민 대상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홍보와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 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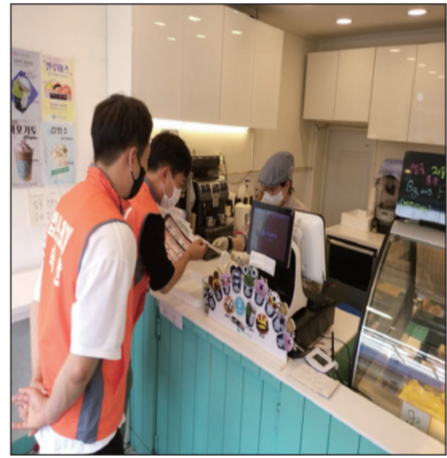
경주시 환경미화원 25명은 지난 2일 쓰레기 수거작업을 마친 후 관광 핫플레이스 황리단길 일대에서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지도·단속활동을 실시했다.

환경미화원들은 이날 불법쓰레기 단속반 조끼를 착용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방법을 홍보하고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펼쳤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환경미화원들은 쓰레기 수거, 가로변 청소 등 청소업무만 해 왔으나, 이번 홍보·지도단속 활동으로 '공익'을 위한 복합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이후 환경미화원들은 정기적으로 특정 구역에서 맞춤형 생활쓰레기 수거일과 배출방법 홍보,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감시 활동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완 경주시 자원순화과장은 "환경미화원은 쓰레기 수거와 청소



만 담당하는 단순 근로자가 아니라 주민홍보 및 단속활동 등에 대한 의무도 있다"며, "환경미화원들의 복합업무 수행으로 시민들이 더욱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환경미화원과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이·통장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증'을 발급하고 지역 밀착형 환경감시와 적절한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반식기자

대구유아교육진흥원, 행복더하기 부모교육 운영

대구유아교육진흥원은 부모-자녀 간 건강한 관계형성과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 학부모 및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행복더하기 부모교육'을 운영한다.

편해문 놀이터 디자이너의 강의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의 주제는 '아이가 원하는 놀이환경을 어떻게 가꿀까?'이다.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돕고 자녀에게 적합한 놀이환경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수 신청은 9월 10일 오전 11시부터 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덕주 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하여 유아기에 적합한 놀이환경을 부모가 이해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2021. 행복더하기 부모교육

아이가 원하는 건강한 놀이환경을 어떻게 가꿀까?

일시 2021.9.27.(월) 10:00-12:00

대상 대구 거주 유치원 학부모 및 예비 학부모

장소 편해문(놀이터 디자이너)

장소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시청각실

신청기간 2021.9.10.(금) 11:00 - 9.15.(수) 18:00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Hot yeong yang 온심마켓

영양군로컬푸드 온심마켓

영양군 우수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온심마켓

https://yyg.go.kr/onsimmarket

문의전화 054-682-6277

다음에서 '온심마켓'을 검색하세요!
네이버에서 '영양고향장터'를 검색하세요!

익산시, 자연재해위험지역 사전정비 '총력'

994억 예산 투입 선제적 재난 대응, 시민 생명·재산 보호, 재해 예방에 총력

익산시가 자연재해 차단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대거 투입해 사전 정비에 나선다.

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나 태풍 등 불시에 닥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에 재해 예방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시는 재해예방 및 위험지역 15개 지구에 올해 국도비를 680억원을 포함한 총 99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자연재해 발생과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재해 예방사업은 그 규모의 특성상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익산시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전라북도, 협조체계를 통해 대규모 예산을 확보해 2018년부터 재해 예방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시는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집중 호우 시 주변 주택, 농경지 등 대규모 침수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정비를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에 나선다.

시는 유천배수장의 펌프용량을 증



설(30m³/s)하기 위한 총사업비 250억원 규모의 석탄지구 정비사업과 춘포면 용연리 일원의 상습침수를 해소하기 위한 40억원 규모의 판문지구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 중이다.

지난 2010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여산면 일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자 추진하고 있는 여산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80억원 규모로 올해 상반기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곧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용포면 송천리 일원의 지방도 724호선에 낙석발생을 해소하기 위한 송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과 성당면 월명성포 마을에 붕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성당지구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설계용역이 마무리되어 공사 발주중에 있다. 남산면 남산리 일원의 군도 30호선에서 발생한 낙석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아리랑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설계 용역 진행 중이

다. 한편 인화동 이마트 사거리 등에 상습침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는 2020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2년도 말에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일대의 도심 침수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국비를 지원받기 어려운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도비를 확보하여 8개지구(장인지구, 노동지구, 침철지구 등)에 총사업비 12억 규모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현울 익산시장은 "최근들어 급변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가 잦은 만큼 재해 예방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기"라며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해 예방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신규 사업 대상지 발굴 등 국비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수/기자

전주시 미얀마대학생에 2075만원 특별장학금



전주시는 7일 전주시장실에서 대학교 미얀마 대표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얀마 대학생을 위한 특별장학금 2075만 원을 전달했다.

특별장학금은 지난 6월 이후 전북은행 1000만 원, 전주시실공단 518만 원, 중립산업 300만 원, 전주시청 직원 및 시민 257만 원 등 각계각층에서 모아 마련했다.

이날 기탁된 장학금은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총 83명의 미얀마 대학생에게 각각 25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그간 기관·단체로부터 기탁 받은 총 1억 원의 성금을

미얀마 민주화지지 전우연대에 전달한 바 있다. 시는 또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미얀마 유학생 12명을 희망근로자로 채용했으며, 미얀마 민주화지지 티셔츠 판매장소 5곳을 지원하는 동시에 미얀마 대표 학생들을 돕기 위한 간담회도 개최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지 200일이 넘었지만 미얀마에서는 여전히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얀마가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희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기관·단체 및 기업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군산금강미래체험관 '금강미래 체험꾸러미' 운영

유·초등 체험 프로그램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



군산금강미래체험관은 9월부터 두달간 비대면 체험프로그램인 '금강미래 체험꾸러미'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금강미래 체험꾸러미'는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운영이 중단된 유·초등 현장체험프로그램을 대신해 운영하는 것으로, 이번 프로그램은 재활용이 어려운 폐CD를 활용한 북극곰 시계만들기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비대면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시범운영을 시작해 지금까지 26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약 1,500명이 체험에 참여했으며 이번에는 참여자를 대폭 늘려 신청을 받아 1,700명 정도의 유치원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금강미래체험관의 비대면 수업은 화상 회의 프로그램 zoom을 이용해 금강미래체험관과 신청유치원이 온라인으로 연결,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번 프로그램의 주제는 금강미래체험관의 기후위기 5대 주제 중 하나인 '자원순환'이다.

수업은 쓰레기 분리배출과 관련된 10분짜리 영상을 시청한 후 강사와 함께 각자의 집에서 가져온 폐CD를 활용해 북극곰 시계를 만드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번 비대면 프로그램에 활용하기 위해 동화 신데렐라

의 내용을 각색, 짧은 인형극을 제작했으며, 이 인형극은 금강미래체험관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시청할 수 있다.

꾸러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지난 주 각 신청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꾸러미를 배송했으며, 프로그램을 진행할 강사들에 대한 교육도 일주일간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쓰레기 증가로 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많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은 환경에 관심이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 하는게 아닌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생활습관과 시켜야 될 때"라며 어린이 분리배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현태/기자

완주군의회,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실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사업진행 당부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는 6일 각각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추진현황과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고 균형 추진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화업사를 찾았으며, 국가중요문화재의 보존,관리 상태 등을 살펴보고 추가로 지정된 유물에 대한 관리보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찬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소중한 문화자원으로 국가차원의 많은 관리가 있었지만, 군에서도 더 관심을 갖고 관리와 보존에 힘써 주겠다"며, "추가 지정 가능성이 있는 유물과 자원에 대해서도 빠른 시

일 내 국가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건설 위원회는 삼례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불법방치폐기물 철거사업 현장(은진산업),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지역경제순화센터, 공공승마장 조성 현장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은 "문제가 된 폐기물 현장 등은 공직자들의 무관심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의 작은 관심이 행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함께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공직자들이 관심을 갖고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광수/기자

정읍형 상생 일자리 사업 시작...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정읍시가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정읍형 상생 일자리 3단계 사업으로 총 3개 분야 82개 사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마련해 민간일자리를 넘어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근로자를 모집했다.

지난 7월 신청을 받아 서류검토와 면접을 거쳐 113명의 분야별 근로자를 최종 선발해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재정지원을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 분야는 ▲행정업무 지원 ▲공공시설물 환경정비 ▲도시공원 환경정비 등으로 참여자들은 9월 6일부터 12월 6일까지 3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정읍형 상생 일자리 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발굴해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해 총 3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다.

이번 3단계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계 안정을 위해 추가로 확보한 예산 6억8천만 원이 투입됐다.

또, 2021 전북 시군 일자리 정책평가 최우수 시군 선정으로 확보한 인센티



브 6천만원을 추가 투입해 더 많은 시민에게 일자리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

시는 연말까지 코로나19 집단면역 달성 상황과 경기회복, 고용개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공공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형 상생 일자리가 코로나19로 힘든 서민생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추진해 서민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상생 일자리 사업 외에도 취업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백신 예방접종센터 인력지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 체크, 공공시설물 환경정비 등 총 6개 사업에 39억을 투입, 약 900명에게 공공일 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최하은/기자

순창군, 다양한 민원서식 외국어 해석본 제작

순창군이 지난 8일 외국어로 번역된 민원서식 모음집을 만들어 군청 및 읍면 민원실, 순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배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국제결혼 및 취업 등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성에 걸맞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어로 번역된 민원서식 모음집을 제작했다.

현재 순창군에는 250여명의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거주하고 있으며, 그 숫자도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한글이 서툰 외국인을 위해 모국어로 해석된 민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했다.

이번에 번역된 민원서식은 외국인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족관계 관련 서식 12종, 체류지변경과 인감 관련 서식 9종, 자동차 관련 서식 5종 등 총 26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4개 언어로 번역해 민원서식 작성방법 등이 한글과 병행 기재되어 있어 각종 민원서식에 대한 빠른 이해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제작된 민원서식 해석본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선수/기자



순창군 도광택 민원과장은 "순창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가족 또는 후견인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방문하여도 당당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주민감동의 편의시책 발굴로 다문화가족들이 군민의 일원으로 자신있게 정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수군, 추석맞이 '우체국 쇼핑물 판매전' 최대 30% 할인

장수군은 제15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홍보와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우체국 쇼핑물에서 '장수 사과랑 사과랑 축제와 함께하는 장수사과' 판매전을 운영한다.

장수사과 판매전은 장수군과 장수군 조합공동사업법인, 장수농협, 장계농협, 장수사과원협, 신농농협이 협력해 이뤄졌으며, 공동으로 출하 마케팅을 펼쳐 도시민들에게 명품 장수사과를 홍보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장수군에 따르면 이번 판매전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18과에서 24과로 사과 위주로 상품을 구성하며, 공급업체 할인 및 장수군 지원을 통해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사과를 판매할 계획이다.

9월 추석맞이 쿠폰 할인 프로모션을 시작으로 우체국 쇼핑물 사이트 내 쇼핑25시, 슈퍼윙리, 주말에 뭐먹지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모션 및 특가 이벤트가 진행되며, 판매전은 예산 소진 시까지 이뤄진다.

이근동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판매전은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홍보하고 관내 농가 판로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라며 "장수사과 판매전이 농가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비자들에게는 우수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행사가 될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승우/기자

광주광역시공공배달앱 추석맞이 풍성한 이벤트



위메프오 광주공공배달앱이 9월 추석을 맞이해 주문 고객을 대상으로 풍성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그간 지역민의 착한 소비에 감사하며 공공배달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은 오는 10일부터 10월10일까지 인기 가전제품 3종 5대(의류 청정기, 의류 건조기, 청소기)로 9월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주문 고객이 마케팅 문자메시지(SMS) 수신 동의 후 배달 주문을 하면 자동음모되며, 응모회수 등 제한이 없어 많이 주문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이후에도 자체계획에 따라 경품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9월에도 매주 토요일에 이백 20% 적립과 즉시할인 쿠폰, 전통시장 장보기(무등시장·남광주해

지역민 착한 소비에 감사,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뜨는시장) 배달료 무료 지원이 계속된다. 현재 매주 토요일에 이백 20% 적립 행사는 주문 시 포인트가 적립돼 추후 주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추석 명절 제수용품 장만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수산, 육류, 과일, 반찬 등 신선한 식재료를 광주공공배달앱으로 배달료 무료 및 할인 지원을 받으며 주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7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추석 명절을 맞아 특별판매(10% 선할인)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도 광주공공배달앱에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다.

정부가 9월 중 예산 소진 시까지 배달앱 온라인결제 2만원 이상을 4번 시키면 1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비대면 외식쿠폰 발행사업도 광주공공배달앱에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 전부터 외식쿠폰을 지급해 명절 대목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정영화 시 민생경제과장은 “위메프오 광주공공배달앱이 7월 정식 출시 이후 지역민의 착한 소비와 관심 덕분에 소상공인에게 꾸준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 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와 추석맞이 지역민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풍성한 비대면 행사를 준비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강진군 스마트 그린도시사업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강진군은 지난 3일 강진군 아트를 소공연장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에는 환경부 관계자와 전문가·교수, 사업구역 내 강진읍 남포, 평동, 목리 주민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 전문가토론, 주민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토론 시간에는 서울대학교 이동근 교수 외 3명의 스마트 그린도시 분야 전문가가 참석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한편, 강진군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2022년까지 강진만 생태공원 및 주변마을에 대하여 국비포함 167억 원을 투입해 탄소저감 숲, 투수형 포장 개선, 쓰레기매립장 리모델링



등 주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한다.

이승욱 군수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강진군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타 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강진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사업추진으로 강진을 남도 스마트 생태체험 1번지로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길기자

곡성군, 스마트팜 및 딸기 수경재배 운영기술 교육 실시



양액 제조 방법, 양액설비 점검 및 센서 관리 방법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전남농업기술원 연구 결과인 딸기 수량 우수 농가의 환경관리 방법을 적용한 스마트팜 제어기 활용법에 대해 학습하며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했다.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바쁜 와중에도 현장 교육에 참여한 농업인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스마트팜, 수경 재배 등 첨단시설 운영과 관련해 농업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도 농가 요구에 맞는 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곡성군에서는 220여 농가가 딸기를 재배하고 있고, 그 중 약 50농가가 수경 재배 방식으로 딸기를 생산한다. 또한 매년 청정년 농가들을 중심으로 딸기 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있다. 시설하우스 스마트팜 운영시설 또한 전라남도도와 곡성군의 시범사업 지원으로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현재 3.6ha에 이르고 있다.

최상홍기자

전국 최초 목포문학박람회, 한 달 앞으로

‘2021 목포문학박람회’가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목포 문학관, 평화광장, 원도심 일원 등에서 개최되는 문학박람회가 개막 3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시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추진 방향, 프로그램 등 박람회 전반을 소개했다.

시는 5가지를 문학박람회의 중점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전시, 체험, 강연, 공연 등 109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5가지는 ▲문학(文鄉) 목포 전국에 알리기 ▲문학의 범위 확장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처 제공 ▲쉽고 재미있는 프로그램 운영 ▲목포의 문화유산과 문학의 만남 등이다.

시는 문향(文鄉)으로서의 면모를 알리기 위해 목포에서 태어나거나 활동했던 김우진, 박화성, 차법석, 김현 등 한국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유명 문학인들을 집중 조명하는 ‘4인4색 문학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아가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문학산업의 다양성을 선보이는 출판관, 미디어갤러리(웹툰&드라마&영화관), 글자콘텐츠관, 독립서점관, 헌책방관, 남도문학관 등을 운영한다.



문학을 통한 휴식의 장도 제공한다. 문학 웰니스테라피존이 그것으로 주행사장인 목포문학관 인근에 위치한 갖바위 입암산 생태공원에서 문학 트래킹 등 문학을 매개로 치유 요령 문학인들을 집중 조망하는 ‘4인4색 문학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학의 대중화를 위해 쉽고 재미있는 프로그램 편성에도 중점을 뒀다. 유명 작가와의 만남, 문학콘서트, 문학 아트마켓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와 함께 근대문학길투어, 목포문학과 일주일 살기 등 문학 여행 상품을 출시해 관광객의 주목

을 끌었다.

유명 문학인들의 생활거점이었다던 근대역사문화공간, 목원동 등 원도심에서는 작가 토크, 연극 공연 등을 비롯해 작가들의 생가와 작품 배경지를 둘러보는 골목길 문학관을 운영해 목포의 문화유산과 문학의 만남을 시도한다.

시는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람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방역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독,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뿐만 아니라 동선 등을 치밀하게 관리하고 사전 예약제 현장 인원

제한, 온라인 관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전국 최초로 개최하는 문학박람회의 대중화와 전국화를 위해 문학인, 문학단체를 비롯해 다양한 기관·단체와 힘을 결집시켜가고 있다.

이를 위해 소설가 한승원씨와 시인 황지우씨를 공동 자문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목포 출신 문학평론가인 황정산씨를 위원장으로 하는 집행위원회와 11개 단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세부 프로그램과 운영 계획을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국내 대표 출판사인 ㈜문학고지성사와 목포문학상 장편소설 당선작(상금 1억원) 출판 협약을 체결하고, 전라남도교육청·목포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생들에게 문학 교의의 장으로 제공하는데 뜻을 모았다.

김중식 시장은 “문학박람회가 목포문학의 고수성과 우수성, 한국문학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명해 문학의 대중화를 촉발시키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일기자

영암 무화과를 듬뿍 넣은 '달빛무화과 쌀빵'으로 추석 선물 준비하세요

영암군이 지역 대표 관광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달빛무화과 쌀빵’의 맛과 박스 디자인을 고급화하여 새롭게 탄생시켰다.

군은 전국 1위 생산량과 맛·당도·품질면에서 으뜸인 무화과와 무화과의 고장 영암을 널리 알리기 위해 4계절 맛볼 수 있는 가공식품으로 쌀빵을 개발하여 올해부터 판매하고 있다.

영암군은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기간을 영암읍에서 오는 9. 14일까지

50% 할인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며 추석 선물로 달빛무화과 쌀빵을 추천하고 있다.

더불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판매 중인 달빛무화과 쌀빵을 브랜드 고급화를 통해 지역 대표 먹거리로 거듭나고자 박스와 속 포장지, 소포백을 업그레이드하였다.

달빛무화과 쌀빵의 특징으로 영암 무화과와 쌀가루 100%를 사용한 글루텐프리 밀 알레르기 걱정이 없으며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

가 잘되고 속이 편안하여, 남녀노소 간식이나 아침식사 대응으로도 좋다.

군 관계자는 “달빛무화과 쌀빵은 영암 무화과를 듬뿍 넣어 만든 달콤하고 부드러운 영양간식이다”며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개발, 고급화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영만기자



여수시, 2021년 규제개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

9월 9일~10월 13일까지 접수... 우수제안자 5명 시상



여수시는 시민생활과 기업현장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민생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하반기 ‘2021년 규제개선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시민생활 및 안전 분야는 시민복지나 일상생활 속 불편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 취업 및 일자리창출 등을 저해하는 규제, 시민안전 강화책과 자영업자 지원책 등을 공모한다.

지역혁신 성장 분야는 도시재생, 노후산단 재생 같은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과 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방안을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이달 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며,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3명에게 각각 50, 30, 10만 원 상당의 여수시 상품권을 지급한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여수시민은 누구나 제안서 등 신청 서류를 작성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수제안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계속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선정된 우수 제안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며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일기자

순천시,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순천시는 지난 7일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의 날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복지증진을 위해 고생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서 사회복지 유공자 15명에 대한 순천시 표창과 함께 장애인식 개선영화 ‘학교가는 길’ 관람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은 시민의 복지욕구를 반영한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시민이 더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고, 코로나19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복지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접수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선정작(우수3)에 대한 시상식이 함께 열렸다.

선정된 공모작은 향후 순천시 복지발전의 기초자료 등으로 지역사회와 공유 되어 관련부서 검토 후 제5기 지역복지증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순천시 권문운동 시츄6 모두에(愛) 티켓 나눔 운동에 동참하여 장애인식 개선영화 ‘학교 가는 길’을 관람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복지의 의미를 되새겼다. 영화 ‘학교가는 길’은 사회복지주년을 기념하여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관람이 진행된다.

허서 순천시장은 “이런 뜻깊은 날



누구보다 공감할 의미 있는 영화 관람을 통해 힘을 얻고 가셨으면 좋겠다.”며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복지수혜자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기에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만기자



김덕윤기자

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 스마트서비스 우수성 널리 홍보

국토·과기부 주최 2021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전시 참가

대전시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1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 2021)에 참가하여 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의 우수 스마트서비스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2021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제5회)”는 국토·과기부가 주최하는 아태지역 최대 스마트시티 국제행사로서 스마트시티, 현실이 된다”를 주제로 국내외 도시 전문가, 기업들이 함께 스마트시티에 관한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는 국제행사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대전시는 ‘4차산업혁명특별시 스마트도시 대전’을 주제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주차공유, 전기화재예방 등 5개 분야), 우수

스마트서비스(교통, 안전 등 2개 분야) 등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전시한다.

스마트챌린지 사업은 ▲ 통합형 통합형 주차 플랫폼을 통한 주차정보 공유 서비스 ▲ 사물인터넷 센서를 장착, 실시간 전기상태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알려주는 전기화재 예방서비스 ▲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시 무인드론이 사고위치를 출동해 실시간 현장 영상을 119상황실에 전송하는 무인드론 안전망 서비스 ▲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500m 격자 단위로 조밀하게 제공하는 미세먼지 조밀측정망 서비스 ▲ 실시간 도시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클라우드 데이터허브



를 구축하는 5개 분야 사업의 스마트 기술을 선보인다.

그 외 실시간 교통상황을 파악해서 최적신호를 산출하는 스마트신호 제어시스템과 도시철도공사의 인공지능 CCTV 영상 안전시스템도 전시하여 대전 우수 스마트서비스를 널리 알릴 예정이며, 2022년 세계지방정부 연합총회(UCLG) 개최도 홍보한다.

대전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대전의 스마트 기술을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고, 참여기업은 관련기술과 서비스를 홍보하여 전시회를 비즈니스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2021년도 전시회에서 스마트 시티 우수도시 표창 및 대전소재 기

업인 ㈜에프에스와 ㈜한컴인스페이스가 우수기업으로 감사패를 받을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4차산업혁명특별시인 대전시 위상에 맞도록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2022년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UCLG)에서는 스마트 시티 성과를 적극 홍보하여 스마트 산업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원호기자

[강원랜드] 폐광지역 청소년 대상 '예능장학 체험' 실시



강원랜드(대표 이상길)가 ‘2021년 하이원 멘토링 장학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주말 ‘예능장학생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해 폐광지역 청소년들에게 뜻깊은

경험을 제공했다고 6일 밝혔다. ‘예능장학생 체험 프로그램’은 장애인으로 예술을 고민중인 청소년들을 위해 강원랜드가 실시하는 사회공헌 사

업으로,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은 폐광지역 청소년들에게 현장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됐다.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정선, 영월, 문경, 화순, 보령에 거주하는 10여명의 폐광지역 청소년들은 서울 예술의 전당을 방문해 ‘브리즈 아트페어’를 관람하며 예술활동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평소 관심있는 작가를 현장에서 직접 만나 예술가로서 삶, 작품활동 과정 등을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며 평소 막연했던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경험을 쌓았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추후 환경, 사회 2가지 키워드로 직접 작품 창작 활동을 수행할 계

획이다.

이번 체험에 참가한 영월 석정여중 이우리 학생은 “평소 관심 있던 작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예술가의 삶에 대해 어느정도 궁금증이 풀리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관람 소감을 밝혔다.

강원랜드 사회공헌사업 관계자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작품활동을 수행하는 예술가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청소년에게 이번 체험활동과 함께 장학캠프, 온라인학습 콘텐츠 지원 등 ‘하이원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2008년부터 지금까지 약 6,677명에게 170여억원을 지원했다.

조혜영기자

충남 예산 쌀, 청와대 추석선물로 구성돼 '으뜸 품질' 인정받아



충남 예산군에서 생산한 고품질 쌀(삼광벼)이 청와대 추석 선물세트 구성되면서 전국을 대표하는 으뜸 품질을 인정받았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추석 명절을 맞아 1만5000여명에게 선물을 보낸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특히 이번 선물은 충남 예산군에서 생산한 삼광벼를 비롯한 전국 팔도의 쌀과 충주 청명주(또는 꿀)로 구성됐다.

이번 추석 선물은 코로나19 관련 방역현장의 의료진 및 백신 예방접종 현장업무 종사자와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각계 원로,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삼광벼는 예산군의 특산물이자 고품질 쌀이며, 군은 우수한 품질의 쌀 생산을 위해 전국보급 종자에 대해서만 철저한 계약재배를 하고 있다.

특히 군은 가을 수매 전 하품종을

가려 계약재배에서 제외하는 등 고품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수매 후에도 DNA 검사를 통해 품종이 섞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

또한 수매 시에도 삼광벼는 별도로 먼저 수매하고 2차로 일반 수매를 진행해 일반 벼와 섞일 우려가 없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아울러 군은 예산에서 생산한 삼광벼를 대표 브랜드인 ‘미황쌀’로 홍보를 통해 판매해 완판 기록을 세운 바 있으며, 소비자 기호평가에서도 95점 이상을 받는 등 전국 단위에서 예산에서 생산한 삼광벼의 우수성을 입증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예산군에서 생산한 삼광벼가 청와대 선물로 선택받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더 우수한 품질의 삼광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충남교육청, 2021년 한글사랑 공모전 개최

한글사랑의 첫걸음, 우리 함께 실천해요!

충남교육청은 아름다운 우리말, 한글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사랑과 관심을 고취하고 생활 속 한글사랑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21년 한글사랑 공모전’을 개최한다.

‘한글사랑’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8월 26일부터 9월 24일까지 4주 동안 작품을 접수한다. 충남의 초·중·고 학생으로 개인 또는 한글사랑 관련 학생 동아리별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부문은 일상에서 만난 한글 관련 영상 제작물(UCC)과 엔트리, 스크래치 등을 활용한 코딩 프로그램 부문이며,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부문별, 학교급별 총 36개의 작품을 선정하여 교육감상을 수여한다. 수상은 10월 9일 제575돌 한글날 기념식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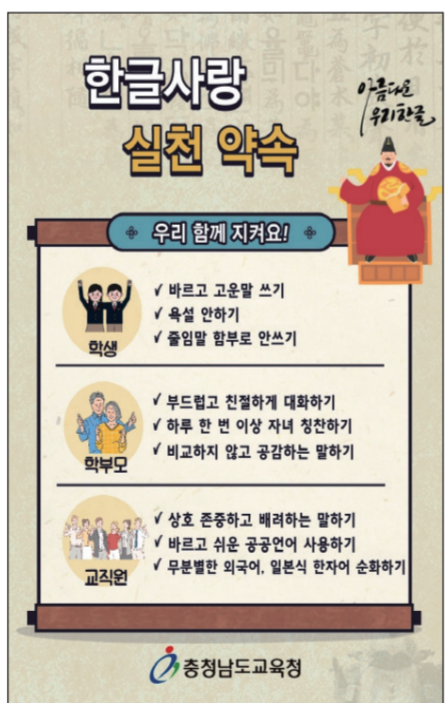
또한 한글날 기념식과 함께 개최

하는 한글사랑 잔치마당인 ‘제3회 우리말 우리글 한마당’에서 수상 작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여, 교육공동체가 한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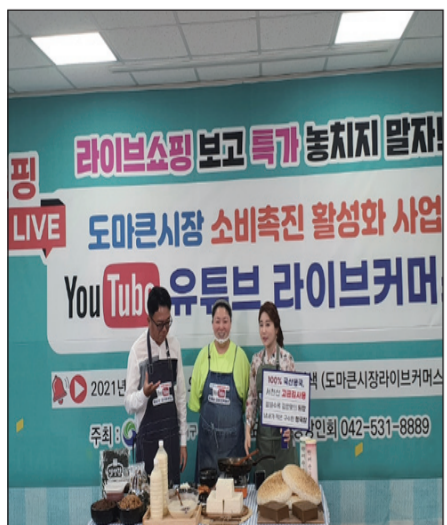
류동훈 교육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생활 속 한글사랑에 대한 실천사례 공유와 적극적 홍보를 통해 바르고 고운 우리말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2021 올바른 한글사용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올바른 한글사용 지원체계 구축, 한글사용 책임관제 운영, 한글 책임 교육 강화, 올바른 한글사용 맞춤형 수업 자료 개발·보급,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한글사용 문화 확산 등을 실천하고 있다.

최정근기자



대전 서구, '전통시장 장보기' 이제는 라이브커머스로!



대전 서구는 관내 전통시장(도마큰시장, 한민시장)에서 코로나19 확산세로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라이브커머스 행사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의 우수 품목을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판매를 촉진하고, 앞으로 다가올 비대면 유통방식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도마큰시장은 지난 7일 두부, 과일, 강정, 족발, 찜갈 등 5개 품목을, 한민시장에서는 8일 과일, 아채, 계장, 녹두전, 자몽청, 생선구이 밀키트 등 6개 품목을 네이버 장보기와 유튜브 채널

을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판매하였다. 또한, 방송과 관계없이 네이버 장보기를 통하여 관내 전통시장의 해당 제품을 상시 구매할 수 있다.

장종대 서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에서 비대면 유통방식의 활성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온라인 장보기 등 전통시장의 온라인 홍보 컨설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영월군, 명실상부한 정원도시로 자리매김!!

영월군이 명실상부한 정원도시로 자리매김한다.

영월군은 지난 19일 산림청의 ‘생활밀착형 정원 패키지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

산림청 생활밀착형 정원패키지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달 19일 세종수목원에서 치러진 공모 심사에 최명서 영월군수가 직접 발표자로 참석하여 영월군 정원도시의 의지를 설명하였으며, 전국 지자체 중 최종 3개소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영월군 정원패키지 사업 추진 예정지는 영월읍 일원으로 실내정원 12개소, 실외정원 6개소이며 사업비는 11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중 실외정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추진하고 실내정원은 국비 50%를 지원받아 영월군에서 사업 추진한다.

영월군은 2018년부터 정원도시 조성을 목표로 정원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금회 공모 선정된 정원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전 영월의 정원화를 통한 정원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금회 선정된 정원패키지 지원사업은 일시에 도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연차별 계획에 의거 조금씩 도시를 변화시켜 머물고 싶고,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사업으로 삶의 만족도를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정원 산업의 동반 육성으로 일자리와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군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강원도, 토종 민물고기 '붕어'인공종자 10만마리 방류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는 우리나라 토종 민물고기인 ‘붕어’ 어린고기 10만 마리(전장 4cm 이상)를 오는 9월 8일부터 도내 5개 시·군 하천 및 호수·저수지 등에 방류한다”라고 밝혔다.

첫 번째 일정은 9월 8일 14시, 화천군 하리 붕어섬에 붕어 어린고기 2만 마리를 방류하며, 이후에는 고성군(9월 9일), 강릉시(9월 10일), 10월 중에는 원주시와 태백시에 각각 2만 마리씩을 방류하게 된다.

이번에 방류하는 붕어는 도내 어업인 뿐 아니라 유어 낚시객에게도 매우 인기 있는 어종으로 붕어썩이나 매운탕 등의 요리로 주로 이용되고, 철분과 칼슘, 불포화지방산 등 각종 영양성분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성장기 청소년들의 성장 촉진, 성인병예방, 위장 강화 및 숙취해소 등에 효과가 높아 전 국민이 사랑하



는 내수면 민물고기이다.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는 “서식환경 악화로 점차 사라져가는 붕어 자원조성을 위해 1997년부터 2020년까지 붕어 종자 3,171천 마리를 도내 하천과 저수지에 무상 방류하였고, 앞으로도 토속어종의 자원 회복 및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방류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용인시, 추석 맞아 어려운 이웃 위한 온정의 손길 이어져

추석 명절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시의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

7일 용인시청 시장실에는 문종식 대표를 비롯한 (주)신풍자원 관계자들이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문종식 대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마련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희수 (주)백산엘앤티 대표와 장정순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도 37여종의 조명기구 및 크리스마스 트리 용품(25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조명기구 및 크리스마스 트리 용품이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지길 바란다”며 “복지로부터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 (주)대원고속은 1만원권 온누리 상품권 1000매를, (주)세트렉코리아(대표 김중현)는 지난해에 이어 성금 500만원을 기부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온정의 손길을 보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전달해 주신 성금품은 따뜻한 마음을 담아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가정과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혜영기자



예산군 오가면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 추석맞이 별초 봉사

예산군 오가면새마을협의회는 고령친화 추석맞이 행사를 맞아 지난 7일 오가면 내량리에 위치한 공동묘지 무연분묘에 대해 회원 40여명이 별초 및 잡목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또한 국토대청소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홍보도 병행 추진했다.

오가면새마을협의회는 추석을 앞두고 방치된 무연분묘에 대한 별초 봉사활동을 펼치며 효의 미덕을 실천하고 국토대청소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홍보를 통해 깨끗한 고장을 위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문수 새마을협의회장은 “이번 추석 별초에는 깨끗한 고장을 위한 국토대청소 및 음식물 감량 홍보도 같이 진행하게 돼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효와 정이 넘치는 오가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형규 오가면장은 “어려운 시기에 도 별초봉사와 홍보에 참여해 지역



사회에 훈훈한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도와주시는 지역주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후손이 돌보지 못한 무연분묘에 대한 별초 봉사를 지속 추진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오가면을 만들어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진주교육지원청, 추석 명절 맞이 진주소방서 위문금 전달



지역민 안전을 위한 헌신과 노고에 따뜻한 격려와 깊은 감사

하여 추진되었다.

진주교육지원청 위문단은 코로나 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소 인원으로 방문하였으며, 박유진 진주소방서장과의 환담을 나누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원들에게 감사사를 표하고, 위문금 전달 기념촬영을 끝으로 위문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박영주 교육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원들이 있기에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다”며 “더욱이 코로나 19 대응 최일선에서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소방대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최광용기자

진주교육지원청은 추석을 앞두고 7일 진주소방서를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달하였다.

이번 위문 방문은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지역방위와 구급활동 등으로 대민지원에 헌신하고 있는 소방대원과 위주소방원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

제10회 대구시 노인복지대상 수상자 선정

모범노인, 노인복지·권익향상 기여자, 기관·단체 등 3개 분야 1명씩 선정



대구시는 모범노인 부문에 ‘전수’ 어르신, 노인복지증진 및 권익향상 기여자 부문 ‘여명화’ 사회복지사, 노인복지증진 기관·단체 부문 ‘햇빛재가노인돌봄센터’를 제10회 노인복지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올해 10회를 맞는 대구시 노인복지대상은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어르신과 노인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람·기관·단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상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개 부문 총 27명에게 시상했다.

모범노인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전수’ 어르신(남, 82세)은 전국계이트불연합회 1급 심판원 자격증과 세계계이트불연맹국제심판원 자격증을 취득해 생활체육인 게이트볼 지변화대에 기여했으며, 서구 그라운드를

프린팅회장을 역임하면서 어르신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매주 월·수·금 이웃 주민들과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청소와 인근 초등학교 주변에서 교통안내, 환경정비 봉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서구 평원경로당 회장으로 취임해 화목한 경로당 운영을 위해 힘쓸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종 노인복지 정책을 적극 홍보해 오고



있다.

여명화 사회복지사 노인복지 및 권익향상 기여자 부



문 수상자로 선정된 ‘여명화’ 사회복지사(여, 37세)는 14년간 사회복지현장에 근무하면서 차대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사업,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재가노인돌봄사업등을 충실히 추진했고, 현재는 중구노인복지관의 노인일자리 담당자로서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을 통해 보람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대구지역 노인복지관 중 최초로 사회복지서비스형 일자리를 창출해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햇빛재가노인돌봄센터 노인복지증진 기관·단체 부문 수상단체로 선정된 ‘햇빛재가노인돌봄센터’(남구 소재)는 1998년 5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허가받아 저소득 취약 독거노인들에게 정겨운 이웃으로 노인돌봄을 전문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으며, 2019년 12월에 대구시 제1호 재가노인돌봄센터로 지정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가노인서비

스, 우울증 및 은둔형 노인 특화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재가돌봄서비스기관으로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노인복지대상은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구·군과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았고, 후보자 18명 중 언론·학계·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들에 대한 시상식은 10월 5일 개최 예정인 ‘제25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뤄질 계획이다.

박재홍 대구시 복지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시는 분들의 선행에 감사드리고, 이분들의 따뜻한 소식을 널리 알리게 돼 기쁘다”며,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데 대구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신동은 괴산군의의회 의장, 'Live Together' 챌린지 동참

신동은 괴산군의의회 의장이 지난 7일 인종 차별을 반대하는 글로벌 캠페인인 ‘리브 투게더(Live Together)챌린지’에 동참했다.

‘Live Together(리브 투게더)’ 챌린지는 코로나19와 맞물려 급증한 인종차별, 혐오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유네스코와 외교부가 함께 시작한 글로벌 인종차별 반대 릴레이 캠페인이다.

신동은 괴산군의의회 의장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세

상이 아닌 인종차별 없이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한다”라며 “누구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차별 없는 괴산군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진 청주시의회 의장의 지명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한 신동은 괴산군의의회 의장은 챌린지를 이어갈 다음 주자로 김용래 영동군의회의장을 지목했다.

김원호기자



강화군, 모범 다문화유공자 표창 수여

유천호 군수, 다문화 가족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에 앞장



유천호 강화군수가 2021년도 다문화 인식개선과 사회통합에 기여한 모범 다문화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 상담 ▲가정 내 폭력 예방 및 지원 ▲아동에 대한 교육·교육 지원 ▲진정부모 초청 및 모국방문 지원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펼치며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날 표창 수상자 양성필 씨는 지난 2014년부터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운전면허 교실 ‘HAPPY뽕빵’을

운영해 면허취득을 돕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차이와 차별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왔다. 또한, 최근에는 5개국 17명으로 구성된 다문화 치안봉사단을 발족해 범죄예방활동, 복지시설 봉사활동 등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오늘 수상자를 포함해 다문화가정의 복지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다문화가정이 사회적 편견 없이 서로 소통하며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을 해나하겠다”고 말했다.

김충남기자

윤경희 청송군수, 세계자유민주연맹 자유장 수상

윤경희 청송군수가 9월 7일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군민행복 및 복리증진에 헌신한 공로로 세계자유민주연맹(World League Freedom Democracy)에서 수여하는 포상인 ‘자유장’을 수상했다.

대만에 총본부를 둔 세계자유민주연맹은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144개국이 가입해 있는 국제민간기구로서 1967년에 창설되었으며, 2001년부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세계평화를 위해 헌신한 사회 저명인사를 발굴해 ‘자유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날 청송군청 군수실에서 열린 수상식(전수식)에서는 야오잉치 세계자유민주연맹 총재를 대신해 이우경 한국자유총연맹 경북도회장이 ‘자유장’을 전달했다.

윤 군수는 민선 7기 청송군수로 취임한 이래 청소년민주시민교육, 어머니소녀봉사활동, 동네행복지킴이, 청소년 안보전적지 체험행사, 자유수호희생자활동위령제 등 자유총연맹 활동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특히 소통과 화합의 민주적 리더십으로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등 군민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힘써 온 공로를 크게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세계자유민주연맹 자유장을 수상한 것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더욱 힘쓰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보의식과 지역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 청송군지회 권오영 회장은 “세계자유민주연맹에서 주는 자유장을 우리 군의 윤경희 군수님께서 수상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며 “앞으로 자유수호 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자유장을 전수한 이우경 회장은 매년 국경일에 범도민 「나라사랑, 경북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어 훈훈한 미담 사례가 되고 있다.

김세기기자

서울시, 문화비축기지에서 '오픈미디어아트페스티벌 2021' 개최

9.9.~12.까지, '인간 x 예술 x 기술 x 자연'을 주제로 미디어 전시 진행



서울시 문화비축기지는 오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디지털 아우라>를 주제로 미디어가 가져온 새로운 예술과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미디어 아트 행사 '오픈미디어아트페스티벌 2021'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픈미디어아트페스티벌”은 2015년 대한민국-싱가포르 수교 40주년 기념행사 <싱가포르 오픈미디어아트 페스티벌(Singapore Open Media Art Festival)> 개최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3회의 싱가포르 오픈미디어아트페스티벌을 싱가포르와 한국에서 진행했다.

이후 미디어아트페스티벌의 지평을 넓히고자 <오픈미디어아트페스티벌(Open Media Art Festival)>로 명칭을 바꾸고, 제 4회 ‘오픈미디어아트페스티벌 2020’을 문화비축기지와 요르단 국립미술관에서 개최하였다. 올해 진행되는 제 5회 ‘오픈미디어아트페스티벌 2021’ <디지털 아우라>는 문화비축기지에서 단독으로 선보인다.

“오픈미디어아트페스티벌 2021” <디지털 아우라>는 한국, 대만, 터키, 케벡(캐나다), 독일, 싱가포르, 태국 등 총 7개국 33명의 작가(팀)가 참여하여 29개 작품을 선보인다.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디지털 아우라”라는 주제 아래, 총 3개의 색선 ‘뉴크리에이터스’, ‘디지털 인포-테크’, ‘디지털 생태’ 색선으로

구성한다. 디지털아트 전시, 오디오/비주얼 공연, 융복합 퍼포먼스, 인터랙티브 아트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 작품 29개를 소개한다. 스페셜 색선으로는 세계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대만과 케벡(캐나다)의 예술가들을 소개한다.

올해 페스티벌은 문화비축기지와 협력으로 탱크의 다양한 공간을 미디어 전시장으로 활용한다. 석유를 비축했던 탱크의 흔적이 남아있는 역사의 장소에서 VR, AR, AI, 로봇, 인터랙티브 아트, 사운드 설치 등의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아트를 전시, 공연, 퍼포먼스로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4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문화비축기지 5곳의 탱크에서 저녁 5시부터 9시까지 전시 관람이 가능하다. 낮에 경험하지 못한 탱크와 공원의 색다른 풍경을 산책하듯 거닐면서 미디어 전시도 감상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다.

현장 관람을 위한 사전예약은 전시 홈페이지에서 9월 6일부터 접수 가능하며, 전시장을 방문하지 못하는 관객들을 위해 참여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는 영상이 오픈미디어아트페스티벌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각 전시 장소별 입장 인원을 조정하여(장소별 15~50명 시간당 입장 가능) 사전예약을 통해 전시장을 운영한다. 각 장소별 현장관람 인원수에 따라 현장접수도 병행한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청의 실선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하게 개최할 예정이다.

관료원 배치, 손소독제 비치, 발열체크와 QR 코드 및 수기명부 작성 등 코로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이용우 서부공원복지사업소장은 “오픈미디어아트페스티벌 2021 행사를 통해 국내외 예술가들의 실험적인 작품을 문화비축기지의 공간적 매력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더불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전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픈미디어아트페스티벌 2021”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오픈미디어아트페스티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문화비축기지로 문의하면 된다.

현유주기자

통영 청년작가6인 단체 전시 '시선vol.1_욕지' 개최



문화도시 통영! 시민문화 활성화 사업

는 청년 작가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욕지의 모습을 새로운 시선으로 해석하고 각자 전문 분야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표현하였다. 또한 이번 기획전을 시작으로 앞으로 통영의 여러 섬으로 주제를 확대하여 작품 활동 및 전시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시와 함께 시민참여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갤러리 입구에 배치된 컬러링 엽서에 자신만의 색을 담아 꾸민 후 스캔하여 10월 10일까지 메일로 참여하면 유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로 나누어 각 1명씩 총 3명에게 반팔티셔츠를 제작해준다.

문화도시지원센터 관계자는 “욕지도는 통영의 약 570여 개의 섬 중 욕지와 다리가 놓인 미륵도를 제외하면 통영의 섬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섬이며 오래된 역사와 섬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곳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로컬 청년 작가와 욕지 주민, 나아가 통영 시민들이 섬과 욕지, 과거와 미래를 잇는 문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영시문화도시지원센터는 시민참여형 문화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시민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의 첫 시작으로 통영의 청년 작가 여섯 명이 함께하는 단체 전시 ‘시선 vol.1_욕지’를 9월 7일부터 28일(추석 연휴 및 매주 월요일 휴관)까지 통영 리스타트플랫폼 1층, 갤러리 영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일러스트 황서현, 테라리움 유혜진, 사진 정지훈, 목판화 조현호, 영화 유희늘샘, 회화 김상효가 참여한 다.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

최광용기자

안동시, 2021 산수실경 뮤지컬 “퇴계연가” 공연

안동시가 주최하고 안동국악단이 주관하는 '2021 뮤지컬 퇴계연가'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매일 저녁 8시에 안동의 관광명소인 월영교를 배경으로 안동댐 개목나무 특설무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퇴계선생의 인생과 철학이 담긴 삶을 관조하고 사유하는 진솔한 이야기'를 주제로 한 작품이다. 장원급제 후 백성들의 삶을 돌보고, 중앙 관직을 마다하고 도산으로 낙향

하여 서당을 지어 학봉, 서애, 월전 등 수많은 후학을 양성하며 노년을 맞이했던 성리학자 퇴계선생의 대학자로서의 일대기와 삶을 담담하게 그려냈다.

2009년 450년의 사랑'사로 시작하여 어느덧 13회 공연을 맞이한 뮤지컬 퇴계연가는 안동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서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2021년 뮤지컬 퇴계연가는 연출가 이기동이 극작과 연출을 맡

았으며, 안무 감독 박소연이 함께 협업한 완성도 높은 기대작이다. 박상수 음악감독과 황진현 조경감독 등 지역의 문화예술인들도 참여하여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행하는 무료 공연이다. 자세한 문의는 안동국악단으로 하면 된다.

김세기기자



경남도, 공유경제 도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경상남도는 공유경제 공감 확산을 위하여 '2021 경상남도 공유경제 도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공유경제를 통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 창출'을 주제로, 공간·물건·정보·재능·경험의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만 18세 이상 도민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기업·단체·도내 소재 대학 재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경남도는 접수된 제안 중 최우수 1편(200만 원), 우수 2편(각 100만 원), 장려 2편(각 50만 원)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응모기간은 9월 7일부터 30일까지이며, 경상남도 누리집 내 공고문에 첨부된 제안서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 사회적경제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광용기자

청주시립무용단 정기공연 '태평청주圖' 티켓 예매 시작

청주시립무용단은 오는 10월 7일 오후 7시 30분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정기공연 '태평청주圖' 티켓 예매를 9월 6일 오후 3시부터 공연예매시스템(1만 원, S석 5천 원)을 통해

'태평청주圖'는 다시 보고 싶은 '자연과 영혼의 울림이 깃든 푸르름'을 바라는 대'합'과 '상생'의 그림을 펼쳐 보여 주는 강렬한 기원무이다.

프로그램은 청주시립무용단 '굿판'과 청주 무용의 '소통', 우리나라 전통창작을 대표하는 춤 초정 무대 '화합', 함께하는 '상생'을 통해 금빛 영혼의 춤사위를 그리는 무대를 기획했다.

이번 공연을 위해 한국무용 창작춤을 대표하는 정은혜(충남대학교 무용과 교수)와, 윤수미(동덕여대 무용과



교수), 정명훈(한국무용협회 이사)이 함께하여 수준 높은 예술성과 높은 기

최만식기자

량을 선보인다.

또한, 청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용가들(청주무용협회)과 함께하며 뜻깊은 상생의 의미를 선보이는 무대를 마련했다.

김진미 예술감독은 “청주시민들을 위한 '대 화합'을 그리는 특별한 '태평청주圖' 공연을 강렬하고 시원하게 그려내어 우리나라 춤이 보여주는 신명과 춤사위, 그리고 음악, 조명, 무대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감명과 경이로움을 지켜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본 공연은 사전 예매로만 티켓 구입이 가능하고, KF94 마스크 착용, 객석 간 두 좌석 띄어 앉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된다.

최만식기자

강동구, 제8회 추석맞이 효사랑 한마당 개최

강동구가 오는 14일 오후 3시,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강에서 '추석맞이 효사랑 한마당'을 개최한다.

코로나로 특이한 이동을 자제해야 하는 이번 추석 명절에, 집에서 홀로 지내야 하는 장애인들이 쓸쓸한 명절을 보내지지 않도록 유쾌한 추억의 코미디쇼와 유명가수들의 공연으로 활짝 채워 알차게 준비했다.

올해로 8년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사)서울시장애인협회 강동지회(회장 장희배) 주최로 강동구가 후원하여, 코미디언 이용식·이정표의 '추억의 코미디쇼'와 국악인 박애리, 가수 진성, 박강성, 리누, 김중서 등이 대거 출연하여 다양한 공연을 보여준다.

관람료는 무료로 선착순 500명 입장이며,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다. 단,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관람 인원 초과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풍요로운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효사랑 한마당' 공연이 코로나로 집에 머무는 시



간이 길어진 장애인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줄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현유주기자

세종시 코로나 극복해요! 아름동 힐링 버스킹 음악회

아름동 주민자치회, 지난 5일 주민 대상 음악회 열어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주민자치회가 지난 5일 달빛광장에서 코로나 19로 지친 주민을 위로하고 응원하

기 위해 소규모 '힐링 버스킹 음악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행사장 내부 49명 미

최재은기자

경산시, 우리 동네 역사와 사랑애 빠지다!



경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지난 4일 사단법인 교남문화유산과 연계하여 공동육아나눔터의 자녀돌봄 품앗이 회원(20명)을 대상으로 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적탐방 프로그램 '우리 동네 역사와 사랑애 빠지다'를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품앗이 회원은 “영남대 근처 고분군을 방문하

여 홀로그램, 증강현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의 역사와 옛사람들의 모습을 알아보는 시간을 통해 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다.”라고 했다.

정유희 경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공동육아나눔터 회원들에게 역사와 문화유적 탐방 기회 제공으로 우리 지역의 이해를 돕고, 가족 간 추억을 만드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경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공동육아나눔터는 서부1동과 하양읍에 있으며 부모 참여형 프로그램, 자녀 양육을 주제로 함께 활동하는 품앗이, 안전한 공간제공 및 장난감 대여 등 경산 지역 내의 다양한 가족들의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김세기기자

전라북도 거시기장터 제철농산물 판촉 '제철제맛' 제5탄을 수확한 햇배, 최상의 맛을 선사합니다!!

국민의생각으로 만드는 세종시 일자리 정책

일자리아이디어정책 공모전 개최...청년, 신중년 등 10개 분야 공모



9월 6일~12일, 전주 한옥도 배 5kg, 1,500개 한정 할인

한옥도 배는 1930년대부터 전주 원동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를 시작, 배나무 생육에 최적의 환경인 양지바르고 물 빠짐이 좋은 황토밭에서 오랜 역사의 숨은 노하우로 재배되어 아삭하고 시원한 과즙이 일품이다.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최상의 맛과 신선함을 위해 체계적이고 안전한 재배방식과 GAP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수확, 관리, 배송까지 철저하게 관리한 고품질 햇배를 소개한다.

선착순 1,500개 한정판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5kg, 2상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1상자는 시중가보다 저렴한 23,120원에 소비자가 받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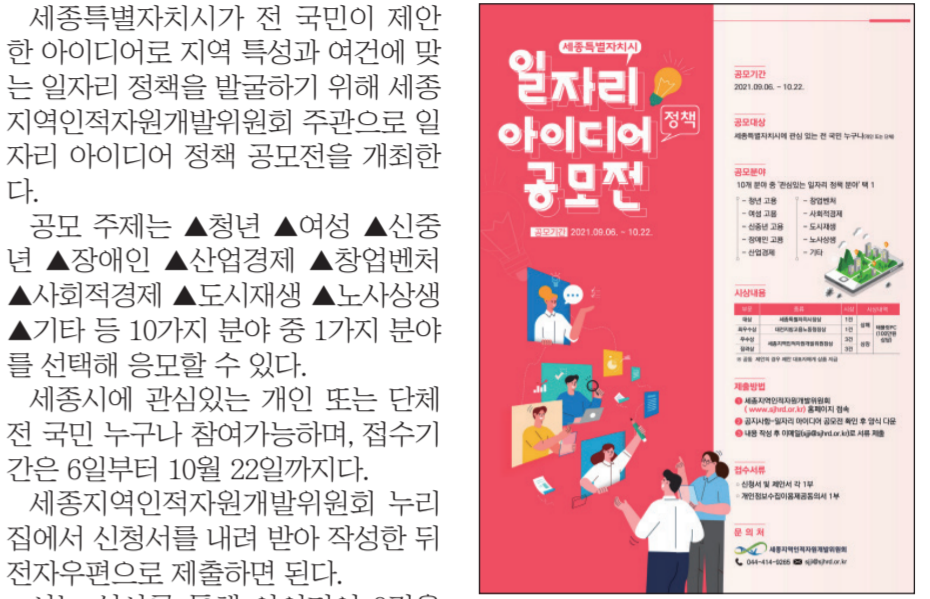
또한, NH농협은행, 전북은행 카드로 결제 시에는 10%를 추가로 청구

할인을 받을 수 있다.구매는 거시기장터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9월 6일부터 12일까지 '제철제맛' 전주 한옥도 배 기획전 팝업창을 클릭한 후 제품 페이지에서 주문하면 된다.

배송 중 제품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삼중 완충망 보강과 고품격 프리미엄 케이스로 설계 포장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편하게 집에서 무료 배송으로 받을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상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나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전주 한옥도 배를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이번 기획전을 마련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동이 어려운 올 추석에는 농민의 팔과 정성이 깃든 전주 한옥도 배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 보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승일/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전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주관으로 일자리 아이디어 정책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청년 ▲여성 ▲신중년 ▲장애인 ▲산업경제 ▲창업벤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노사상생 ▲기타 등 10가지 분야 중 1가지 분야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세종시에 관심있는 개인 또는 단체 전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접수기간은 6일부터 10월 22일까지다.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통해 아이디어 8건을 선정해 상장과 태블릿 PC를 부상으로 시상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향후 일자리 정책에 반영해 세종시 '일자리 정책 대표 브랜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황병순 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양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되어 일자리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재은/기자

경북도,대세로 자리잡은 라이브커머스로 농산물 홍보·판매 날개 단다

인천시, 사회적기업 자생력 강화 나서...추가 지원

올해 '라이브커머스'로 90여 농가 대상 50회 방송, 10억원 매출 목표

일자리창출사업(118명), 재정지원사업(2억9천300만원) 추가 지원

경상북도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해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 개척과 홍보 마케팅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쇼핑이 일상이 된 가운데 온라인 생방송으로 상품을 소개하며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붐이 일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모바일을 통한 쌍방향 소통에 능숙한 MZ세대의 급부상 등으로 '라이브커머스'는 농산물 유통시장에 화두가 돼 전 연령대 소비자들로 더욱 확산 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북도는 농업인들의 '라이브커머스' 확대 요청으로 당초 66농가를 계획했으나 최종 90농가로 추가 선정해 라이브커머스 50회(2농가/회당)

를 방송해 농산물 판매 10억 원을 매출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20차례에 걸쳐 네이버와 배달의 민족 쇼핑라이브를 이용해 사과·복숭아·자두 등 8982세트를 판매해 2억 14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지금까지 누적 시청 횟수 24만 9422회, 좋아요 36만 5166개, 댓글 39만 9497개 등 소비자 참여율이 높아 농가 소득증대, 온라인 홍보·마케팅 효과 등의 기대로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북도는 9일 오후 2시 '네이버 쇼핑라이브'로 지역의 대표 과일인 데일리 사과, 상주 배, 김천 샤인머스켓을 선물세트로 구성해 추석맞이 특별 판매행사를 도청에서 추진한다.

당일 시청자 중 2명을 선정해 농촌 체험휴양마을을 무료 숙박권 증정 이

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올해 국내 라이브커머스 시장 규모는 2조 8000억원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0조 원으로 커질 것이라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라이브커머스'는 TV홈쇼핑에 비해 수수료가 3분의 1정도로 저렴하고 판매자와 소비자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백화점과 대형마트 같은 전통 유통업체는 물론 네이버 등 포털까지 뛰어들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김중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초연결·5G 시대에 인터넷 발달로 막강한 시장 권력을 가진 젊은이(생각 공유), 여성들(시장 공유), 네티즌(감정 공유)을 타겟 마케팅해 지역 농산물 홍보·판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2021년 예비창업패키지 3회에 걸친 역량강화교육 성황리에 종료

울산시 '울산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4건)' 본격 추진

오늘 첫사업 '농소3동주민자치 사회적협동조합'개소식 개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8월 3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2021년 예비창업패키지에 선정된 창업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기반 창업 아이템이 있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멘토링, 교육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으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만 39세 이하 청년 27명과 만 40세 이상 중장년 18명, 총 45명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멘토링, 창업교육 등을 지원 중에 있다.

예비창업패키지 역량강화교육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을 받아본 경험이 적은 예비창업자의 눈높이에 맞춰 기초적인 창업교육으로

구성하였으며 16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번 제3회 역량강화교육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육 내용은 스타트업의 창업과정에서 필수적인 ▲세무(현재세무회계사무소 이현희 세무사) ▲법률/계약 교육(최앤리 법률사무소 최철민 변호사) ▲IR 피칭 전략(㈜잔란의 이윤선 대표) 등으로 구성되었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예비창업패키지 역량강화교육에 이어 실전창업에 도움이 되는 실무 중심 커리큘럼을 가지고 우수한 강사진을 구성하여 심화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중남/기자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작된 '울산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울산시는 9월 4일 오전 11시 울산 북구 달천동 편백산림욕장에서 울산형 마을만들기 시범마을 조성사업 선정단체 중 한 곳인 '농소3동 주민자치 사회적협동조합 개소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는 송철호 울산시장, 이동권 북구청장, 임채우 북구의회 의장, 지역주민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시범마을 조성 경과보고, 현판식, 시설관람 등으로 진행된다.

'농소3동주민자치 사회적협동조합'은 '농소3동의 드림(Dream), 편백을 품다!'를 주제로 편백숲 체험, 편백 휴(休)카페, 마을콘서트, 편백가공제품 판매,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문화체험과 주민 수익 증대 사업을 진행한다.

한편 '울산형 마을만들기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마을의 문제와 주민 수요를 주민 주도로 해결하는 자발적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4건의 사업이 선정되어 3년간 최대 3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울산시는 지난 해 총 24건에 이르는 사업 제안서를 접수 받아 심사를 거쳐 ▲반구1동 마을공동체협동조

합(큰애기 고향에서 소통하다) ▲다전행복발전소협동조합(茶田 행복 발전소) ▲농소3동주민자치 사회적협동조합(농소3동의 드림(Dream)~편백을 품다!) ▲영남알프스숲길 사회적협동조합(정촌포스트마을만들기)을 선정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 사업은 현재 4곳을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주민 참여와 만족도가 높을 경우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 생활영역이 지역 사회 중심으로 축소되어 거주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어느 때보다 마을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지속가능한 공동체 발전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한울본부, 제2차 온라인 원데이클래스 '한울공방' 시행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9월 29일, 온라인 원데이클래스 '한울공방'을 시행한다.

한울본부는 지난 8월 16일 '한울공방'을 통해 프리저브드 왁스타블릿(고체 방향제) 만들기 강좌를 시행한 바 있다. 한울본부는 지역주민의 열띤 호응에 힘입어 이번에는 독서의 계절 가을에 안성맞춤인 '가족 책갈피 만들기' 강의를 준비했다.

강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

해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ZOOM)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강의 시간은 오전(10:30~12:00), 오후(15:00~16:30), 저녁(19:30~21:00) 3회로 구성해 선호하는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 원데이클래스 '한울공방'은 온라인 신청서 접수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1주간이다.

최광용/기자

영화 '상견니', 상친자 열광하게 할 2주차 이벤트 오픈!



오는 9월 8일 개봉하는 '상견니'의 파이널 에피소드 '상견니 대만판 13화'가 '대만판 12화'에 이어 전국에 있는 '상친자'들을 열광하게 할 2주차 이벤트를 오픈한다.

2주 연속 티켓 특별 할인과 더불어 황위쉬안과 천원루, 그리고 왕취안성

의 타임슬립 로맨스를 한눈에 담은 '타임슬립 포스터'를 관람객들에게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뿐만 아니라 '상견니'를 극장에서 N차 관람하면 주연 배우 3인의 친필 사인이 담긴 메인 포스터를 받을 수 있는 N차 관람 이벤트까지 개최해 팬들의 열띤 참여가 기대된다.

9월 8일 '상견니 대만판 12화'에 이어 대만의 파이널 에피소드인 '상견니 대만판 13화' 개봉을 확정해 '상견니'가 2주 연속 관객들을 위한 THANK U 이벤트를 진행해 화제를 모은다.

'상견니'는 세상을 떠난 남자친구 '왕취안성'을 잊지 못한 주인공 '황위쉬안'이 운명처럼 1998년으로 타임슬립 해 그와 똑닮은 남학생 '리쯔웨이'를 만나 벌어지는 아시아 메가 히트 타임슬립 로맨스.

이번에 개봉하는 '상견니 대만판 13화'는 대만 방영 버전(13부작) '상견니'의 마지막화로 '대만판 12화' 관람 후 아쉬운 팬들의 마음을 달래며 또 한 번 '상친자'들을 극장으로 불러 모을 예정이다.

'황위쉬안'(가가연)과 '왕취안성'이자 '리쯔웨이'(허광한)의 애뜻한 타임슬립 로맨스의 방점을 찍는 마지막 에피소드인 만큼 '대만판 12화'에 이어 큰 스크린으로 '상견니'를 관람하

려는 팬들의 뜨거운 반응이 예상된다.

이를 입증하듯 '상견니 대만판 12화' 관람 후 "크게 보니까 더 좋았다... 역시 상견니인가", "13화 얼른 나왔으면 좋겠어요 당일에 달려갈게 사랑해요", "본 걸 또 봐도 새롭고 하ㅠㅠ", "진짜 상친자들은 스크린에서 봐서 너무 행복했어요ㅠㅠ", "상견니 크게 보니까 더 좋음.. 상견니를 큰 스크린으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넘 행복", "다시 봐도 명작.. 아련 그 자체. 여운 장난 아니었다" 등 온라인상에는 '상견니'를 극장에서 크게 관람할 수 있어 좋았다는 호평 비유가 가득해 이목을 끈다.

이미 방영했던 드라마의 특정 에피소드를 개봉하는 이례적 극장 상영임에도 불구하고 '상견니'는 박스오피스와 실시간 예매율 순위권을 유지하고 있어 높은 화제성이 돋보인다.

'상친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개봉 2주차에 '상견니 대만판 13화'를 상영하는 '상견니'는 9월 8일부터 메가박스에서 '대만판 13화'를 관람하면 선착순으로 타임슬립 포스터(A3)를 증정하는 2주차 현장 증정 이벤트를 개최한다.

뿐만 아니라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할인된 금액인 8천 원으로 '상견니'를

관람할 수 있는 특별 티켓 할인 이벤트도 이어간다.

여기에 31일 개봉한 '상견니 대만판 12화'와 이번에 개봉하는 '상견니 대만판 13화'를 N차 관람하면 가가연, 허광한, 시백우 주연 3인의 친필 사인이 담긴 포스터를 받을 수 있는 N차 관람 이벤트도 진행되어 화제를 더한다.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주연 배우들의 사인이 담긴 포스터를 받기 위해 '상친자'들의 무한 N차 관람이 기대된다.

타임슬립 포스터(A3)는 '상견니 대만판 13화'가 상영되는 메가박스 전지점에서 선착순 증정되며 티켓 금액이 할인되는 극장에 대한 정보는 관람 지점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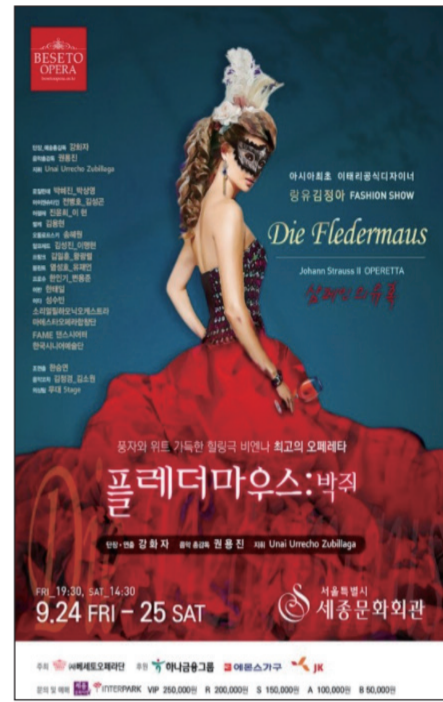
그리고 배우들의 친필 사인 포스터를 받을 수 있는 N차 관람 이벤트에 대한 내용은 오드(AUD) 공식 인스타그램(@audcin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 세계 최초! 대만 방영 버전의 '오리지널 에피소드'로 이례적 극장 상영 중인 '상견니'는 오는 9월 8일 '상견니 대만판 13화'를 개봉한다.

지난 31일 먼저 개봉한 '상견니 대만판 12화'는 전국 메가박스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현유주/기자

베세토오페라단, 오페라타 '플레더마우스:박쥐' 공연



베세토오페라단이 오는 24일~25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오페라타(operetta) '플레더마우스:박쥐'를 펼친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대표 오페레타다. 작은 오페라로 불리는 오페라타는, 해학적인 뮤지컬과 오페라의 경계에 있는 작품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풍자적이며, 노래와 합창대뿐 아니라 극적인 대사도 사용한다.

슈트라우스의 '박쥐'는 율리우스 로데리히 베네딕스의 희극 '감옥'이 토대다. 빈 중시가 붕괴된 1873년이

배경. 당시 경제 공황의 그늘 아래, 더 부각됐던 상류사회의 허영과 가치에 대한 풍자가 돋보인다.

1980년대 국내에서 '박쥐'를 공연한 연출가이자, 베세토오페라단 이사장인 강화자 단장이 연출한다. 그녀는 귀족사회 배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유틸 있는 풍자극으로 풀어낸다.

특히 무도회장 파티 장면이 패션쇼 무대가 함께 연출된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의상 디자이너로 활동한 디자이너 랑유 김정아가 함께 한다.

강 단장은 "19세기 귀족사회의 풍자와 해학을 코로나로 힘든 현시대로 끌어와 동시대를 호흡할 수 있는 작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권유진이 총음악감독이다. 로잘린데 역에 소프라노 박혜진(단국대 성악과 교수)과 박상영(백석예대 외래교수), 아이젠슈타인 역은 테너 전병호와 김성균이 나눠 연기한다.

소리얼 필하모니오케스트라와 마에스타 오페라 합창단, 러시아 무용수 댄스팀 FAME, 디자이너 랑유 김정아가 이번 무대를 위해 뭉쳤다. 자강그룹의 민남규 회장이 후원했다.

'플레더마우스:박쥐'는 애초 지난해 8월 '2020 제11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프로그램 중 하나로 공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순연된 바 있다.

최재은/기자

뉴웨이브 K-POP 아티스트 BÉBE YANA (베이비 야나) 신곡 '딸기키스' 발매



9월6일 정오 발매되는 BÉBE YANA (베이비 야나)의 신곡 '딸기키스'는 새로운 개념의 K-Garage(K-pop + UK Garage) 음악이다.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완벽한 사랑. '이게 꿈이 아닌, 현실이라면 깨어나 볼래?'라는 내용을 담은 타이틀곡 '딸기키스'는 달콤한 사랑을 꿈꾸는 한 소녀의 이야기다.

BÉBE YANA (베이비 야나)는 작사, 작곡은 물론 전체적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에 직접 참여하며 그녀만의 세계관을 보다 뚜렷하게 대중

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딸기키스'는 실험적인 사운드 메이킹으로 대중 및 매니아층에 잘 알려진 골드부다가 직접 프로듀싱에 참여한 작품이며, 이 두 아티스트의 콜라보레이션은 개척정신과 안정된 사운드 사이에서 생산되는 New Wave K-pop을 표방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최하는 '뮤즈온 2021' 뮤지션으로 선정되며 공식 활동의 시작을 알린 BÉBE YANA (베이비 야나)는 최근 출연한 M드라마 유튜브 채널 예능 프로그램

'대부남'에서 독특한 예능감으로 진행자인 탁재훈을 당황케하는 상황을 연출하며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바 있다.

어린 시절부터 후주에 거주하며 습득한 원어민 수준의 영어 구사 능력도 보유, 앞으로 글로벌 진출에도 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는 BÉBE YANA (베이비 야나)는 신곡 '딸기키스' 발매를 시작으로 TV, 라디오 출연 등 왕성한 활동을 예정하고 있다.

최광수/기자

'달리와 감자탕' 박규영, '열혈 달리' 모먼트 공개

논문 속에 파묻힌 미술관 연구원!



'달리와 감자탕' 박규영이 논문 속에 파묻혀 연구에 몰두하는 '열혈 달리' 모먼트가 포착됐다. 예술, 종교, 언어 등 다분야 어나 더 레벨 능력자인 그녀는 고된 연구에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 듯, 다크서클 하나 없이 투명 비주얼을 자랑해 시선을 강탈한다.

KBS 2TV 새 수목드라마 '달리와 감자탕' 측은 2일 미술관 연구원 김달리(박규영 분)의 '열혈 달리 모먼트' 스틸을 공개했다.

'달리와 감자탕'은 '무지-무식-무학' 3無하지만 생활력 하나는 끝내주는 '가성비 주'의 남자와 본 투비귀티 활활이지만 생활 무지렁이인 '가심비 중시' 여자가 미술관을 매개

체로 서로의 간극을 좁혀가는 '아트' 로맨스이다.

'단, 하나의 사랑', '동네번호사 조들호', '힐러', '제빵왕 김탁구'의 이 정점 감독과 '어느 멋진 날', '마녀의 사랑'의 손은혜, 박세은 작가가 의기 투합하는 작품으로, 눈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미술관을 배경으로 이제껏 본 적 없는 신개념 아티스트 로맨스를 선보인다.

명망 높은 청송가의 무남독녀인 달리는 웬지 모를 귀티가 흐르는 단정한 외모, 자연스런 배려가 항상 품에 배어 있는 인물이다.

마음도 예쁜 그녀는 공부에도 취미가 있어 한국 최고의 대학을 졸업했고 일본에서 석, 박사 후 네덜란

드 미술관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다.

미술뿐 아니라 역사 철학 종교 등 다방면으로 조예가 깊고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등 7개 국어에 능통한 어나 더 레벨 '능력캐'이다.

공개된 스틸에는 두께만 봐도 현기증을 일으킬 만큼 어려운 외국 서적이 꽂힌 책장 앞에 자리를 잡고 '열 연구' 중인 달리의 모습이 담겼다.

달리는 미술관 구석에 쪼그린 자세로 앉아 끼니와 잠도 잊은 채 막 대사랑으로 당을 충전하며 연구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피곤할 법하지만, 즐거운 놀이를 하듯 공부에 푹 빠진 달리의 해맑은 비주얼이 미소를 부른다. 예술을 포함해 다분야에 능한 어나 더 레벨 능력캐 달리의 활약을 기대하게 한다.

'달리와 감자탕' 측은 "예술밖에 모르는 '예술 바보'이자 어나 더 레벨 능력캐 김달리의 캐릭터를 단적으로 담아낸 장면이다. 모든 일에 순수하고, 열정적인 달리의 매력에 안방 시청자들의 마음을 뺏을 것"이라며 "달리로 비주얼부터 내면까지 100% 빙의한 박규영의 활약에 많은 기대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3개월의 휴식을 끝내고 KBS 2TV 수목극 라인업의 첫 주자로 나서는 '달리와 감자탕'은 오는 22일 밤 9시 30분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현유주/기자

인피니트 남우현, 단독 콘서트... 10월 '식목일 ON'

그룹 인피니트 남우현이 소집해제 후 단독 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한다.

남우현은 오는 10월2~3일 온택트 콘서트 '식목일 ON'을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양일 서로 다른 공연으로 채워져 팬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티켓 예매는 7일 오후 3시부터 인터파크를 통해 가능하다.

최재은/기자



슈퍼주니어, 대만 'KKBOX' 韓 앨범 차트 200주 1위



슈퍼주니어가 대만 최대의 온라인 음악 사이트 'KKBOX' 한국 앨범 차트에서 200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

3일 슈퍼주니어측에 따르면 대만 KKBOX 플랫폼 내 단일 차트에서 200주 연속 1위를 달성한 것은 슈퍼주니어가 유일하다.

슈퍼주니어는 2017년 11월3일 정규8집 '플레이'부터 2021년 9월2

일 정규 10집 '더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 약 4년 간 차트 정상을 지켰다.

리더 이특은 소속사 Label SJ를 통해 "믿을 수 없다"며 "오랜 시간 1위를 이어올 수 있도록 큰 사랑 주신 엘프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만식/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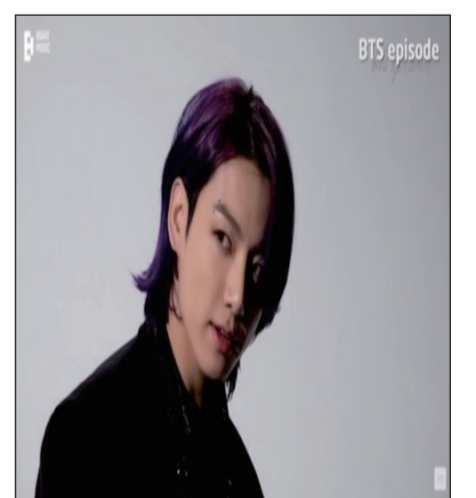
'BTS' 정국 솔로 2곡, 7주 연속 빌보드 톱10 동시 랭크

그들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선보인 솔로곡 '유포리아'와 '시차'가 빌보드 차트 톱10에 7주 연속 동시에 올랐다.

빌보드 4일자 최신 차트에 따르면 정국의 솔로곡 '유포리아'는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8위를 차지했다. 또 다른 솔로곡 '시차'는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9위에 올랐다.

정국은 한국 가수 중 유일하게 솔로 2곡을 빌보드 차트에서 상위 10위권에 올렸다.

특히 '유포리아'와 '시차'는 7주 연속으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10위안에 들었다.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도 한국 솔로곡으로는 1, 2위에 올라 각각 78주, 74주째 이름을 올리는 음반이다.



'유포리아'는 역대 한국 아이돌 솔로곡 중 최장기 차트인을 기록했다.

최광수/기자